

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65
2010.06.23
gonggam.korea.kr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기획특집 SAFE KOREA
더 안전한 대한민국

나이지리아 넘어 16강 가자

한국이 주도하는 첫 국제기구 GGGI 창립








조심조심 코리아

The 43rd Week of Safety & Health

제43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2010.7.5월~10토 / 서울 코엑스



제 43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일　　시 : 2010년 7월 5일(월) 11:00 ~ 13:00
장　　소 : COEX 1층 그랜드볼룸 (101호 ~ 103호)
행사내용 : 시상식, 기념사, 축사, 주제영상 상영

안전보건 세미나

기간 : 2010년 7월 5일(월) ~ 9일(금)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및
1층 그랜드볼룸 (104호 ~ 105호)
제 1주제 :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전략
제 2주제 : 산재예방을 위한 효율적 위험관리
제 3주제 : 건강한 일터, 튼튼한 근로자
제 4주제 : 화학물질의 새로운 접근
※ 각 주제별 세부내용 및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기간 : 2010년 7월 5일(월) ~ 9일(금)
장소 : 코엑스 3층 컨퍼런스센터
※무재해 성공사례 등 9개분야

제 28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기　간 : 2010년 7월 5일(월) ~ 8일(목)
장　소 : 코엑스 1층 Hall B (구 인도양홀)
개관식 : 2010년 7월 5일(월) 10:30 ~ 11:00
내　용 : 산업안전, 보건, 작업환경개선, 소방 관련
제품 전시, 안전관련분야 제공



안전보건 퀴즈대회 (KBS "1대100" 강조주간 특집편성)

녹화 : 2010년 6월 20일(일) 18:00 ~ 22:00
방송 : 2010년 7월 6일(화) 21:00 ~ 22:00
장소 : KBS TV 공개홀

안전동요제

일시 : 2010년 7월 6일(화)
13:00 ~ 18:00
장소 :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안전보건 UCC Show

기간 : 2010년 7월 5일(월) ~ 8일(목)
장소 : 국제안전보건전시회 (Hall B, 구 인도양홀)
공단 홍보관

안전한 사회만들기 범국민 페스티벌

기간 : 2010년 7월 10일(토) 11:00 ~ 19:00
장소 : 서울청계광장 (장소는 행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노동부 Ministry of Labo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행사 문의 : 전화 : 032-5100-674~8 www.kosha.or.kr

안전이야말로 과학이요 투자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건물이나 시설은 점점 고층화하고 땅속으로도 깊이 들어간다.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교통수단은 점차 고속화, 대형화한다. 가스와 전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설비는 갈수록 대형화, 집적화한다.
미래사회는 더 큰 위험사회다.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꼽히는 나노, 유전자조작, 발광다이오드(LED) 등과 같은 신기술이나 신산업은 새로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기할 수도 없다.

위험사회란 위험을 회피하거나 배척하는 사회가 아니라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고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 선진국일수록 위험은 점점 대형화, 복합화, 고도화하지만 사고발생률은 점점 더 낮아진다. 고도 경제성장의 양날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고공화국'이다. 안전에 관한 한 후진국이다. 불편하지만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은 건수는 1년에 무려 1천3백만 건에 이른다. 직접비용만 27조5천억원이다. 간접비용에다 다친 사람을 돌보기 위한 제2의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탓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나 대증요법으로 버텨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처한 결과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대충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신기술과 첨단산업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꿈꾸는 우리나라는 이미 고도의 위험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소한 위험도 순식간에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사회적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 공짜 점심만 없는 게 아니라 공짜 안전도 없다. 안전이야말로 과학이요, 투자다. 안전 선진국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나라다. 신기술과 첨단산업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꿈꾸며 선진국 진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G

Weekly
2010.06.23
No.65(통권 166호)



표 지 이 야 기

4년을 벼르고 별렀다.
16강 도약을 위한
최후의 일전이 다가왔다.
예선 1차전 완승, 2차전 완패.
이제 남은 건 '3차전 쾌승'뿐.
물러설 수도, 물러설 곳도 없다.
열정의 태극전사들에게 행운을!

Contents

20



일러스트 · 김영민



12



54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6.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기 획 특 집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한다.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국민들은 안전한 나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게 된다.
각국 정부 또한 안전관리와 위기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안정된 정치,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성숙한 시민의식은 선진국의 기본.
더불어 공해와 오염에서 벗어난 쾌적한 환경, 범죄와 사고·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여건이 갖춰지고,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예측 가능하며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때 'SAFE KOREA'는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56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64호(2010년 6월 16일자) 기획특집 '나라 위한 희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특집기사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많은 애국자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후손들이 이 땅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분들에게 정부와 국민은 상응하는 보상과 명예를 안겨줘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_장삼동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매스컴에서 여러 기념될 만한 일을 하는 건 참으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특집기사는 전쟁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세대에게 역사를 통해 6·25전쟁이 남긴 교훈을 깨닫게 하고, 호국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하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고결한 애국심,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_김수미

"국가 위해 헌신한 분들 끝까지 책임져야"

"매년 찾아오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숙연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46명의 천안함 용사들 때문일 겁니다. 이제 정부와 국민은 그들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빠짐없이 찾아내 합당한 포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6·25전쟁 같은 민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기꺼이 한 몸을 바친 그들의 거룩한 뜻을 두고두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_임성선

64호 이슈 '우리 아이들 24시간 보호한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학부모이다 보니 자녀들의 안전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랍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 안에서 납치돼 성폭력을 당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초등학생들에 대한 3백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_최혜빈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몸도 마음도 덜 자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어린 새싹들이 당당히 한몫을 해낼 큰 나무로 무사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_windlss





알립니다

‘KTV 블로그’ 기자단 모집

KTV 한국정책방송은 취업, 문화, 정책 분야 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들어갈 ‘비타민K 블로그 기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 | 사회, 문화, 생활, 정책에 관심 많은 대학(원)생
모집 분야 | 글+사진 부문(글쓰기에 소질이 있고 사진 촬영 및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분), 동영상 부문(기획, 촬영, 편집 등 1인 UCC 제작에 능숙한 분)
활동 기간 | 2010년 7~12월(6개월간)
활동 내용 | 격주 1회 기획회의 참여, 월 2건 이상 블로그 콘텐츠 작성(채택된 포스트는 건당 소정의 원고료 지급) *우수 활동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접수 기간 | 6월 28일까지
접수 방법 | 지원서 1부, 주제에 맞는 A4 2장 이내 블로그 형식 기사 혹은 3분짜리 영상 포트폴리오를 e메일로 제출(zoohere4@korea.kr)



한국정책방송 기획편성과
Tel **02-3450-2183**
blog.naver.com/ktv520

‘장애인 삶의 질 높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장애인단체, 재활 관련 대학 등 장애인 재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이나 팀 단위 참여 가능)
모집 분야 | 보조기술, 임상재활, 재활정책
접수 방법 | 분야를 정해 파워포인트 10장 내외로 작성,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홈페이지로 제출
접수 기간 | 8월 20일까지
결과 발표 | 8월 30일(월)
시상 내역 | 대상(1팀), 최우수상(3팀), 우수상(5팀) 등 소정의 상금 및 상장 수여 예정
시상 일정 및 장소 | 9월 9일(목)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 Tel **02-901-1900, ri.nrc.go.kr**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6월 30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남아공월드컵에서 B조에 속한 팀. 6월 23일 대한민국과 격돌.
4. 표준국어대사전에 뜻풀이가 ‘숟가락의 방언(충남)’ ‘지키는 사람’ ‘두서너 글자’ 등으로 나와 있는 단어.
6. 갑작스럽게 많은 관심을 모으거나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이르는 말. “남아공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이 OO을 일으키고 있다.”
8. 나팔 모양을 한 남아공의 전통 악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9. 한글 자모 ‘ㄴ’의 이름은?

세 로

2. 남아공월드컵 첫 경기 그리스와의 대결에서 우리에게 첫 골을 선사한 태극전사는?
3. 지난 6월 17일 대한민국과 맞붙은 팀. 마라도나, 메시, FIFA 랭킹 7위.
5. 2010 남아공월드컵 공인구 이름. ‘축하하다’라는 뜻을 가진 남아공 줄루어.
6. 돌로 만든 불상. 석불.
7. 넉넉하고 많음. “그 선수는 OO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Weekly 공감〉 63호(6월 2/9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2 온실효과 **3** 인자 **5** 예산 **6** 수능 **7** 거북선
세로 1 발효 **2** 온라인 **4** 자전거 **5** 예능 **6** 수선

〈Weekly 공감〉 63호 ‘공감퍼즐’ 당첨자
민숙기 · 경기 부천시 중4동
서용미 · 인천 남동구 만수2동
이성찬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이승국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최명금 · 전남 완도군 노화읍 양하리

"행복한 '준법시민' 됩시다"

김성환 법무부 홍보대사


일러스트 · 김영민

우리나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뉴스를 보고 온종일 마음이 들떴던 기억이 난다. 또 얼마 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과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세계의 중심국가로 성장했음을 실감했다.

40년 전 내가 연예계에 데뷔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 막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삶의 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코리아'의 저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80~90년대를 거치며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거뜬히 치러내면서부터다. 요즘 공연을 위해 해외를 다녀온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사람 대접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며 뿌듯해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잘 치러낼 정도로 준법의식이 성숙해졌는지 생각해보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질서한 교통문화는 물론이거니와 거리에 흩뿌려진 낯 뜨거운 불법 전단지,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사이버 공간, 일상화된 저작권 침해 등 우리의 기초질서 수준이 그동안 쌓아올린 국제적인 위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을 가깝게 느끼지 않고, 죄지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율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 "법을 준수하자", "기초질서를 잘 지키자"고 하면 트위터로 의사소통을 하는 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무시하기 일쑤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를 산다고 해서 법을 무시해도 될까. 우리의 생활은 법 없이 하루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다. 가정과 학교, 직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질서유지를 위해 법이 존재한다. 생활 속에서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나아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잘 활용할 때 우리의 생활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비일비재하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저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도 기초질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공공장소에서 작은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하기, 불법 다운로드 받지 않기 등과 같이 사소하게 느껴지는 작은 규칙이라도 착실히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잘 활용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 것도 선진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때 국가신인도와 국가경쟁력도 강화돼 행복한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성환(탤런트)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최규석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 '2010 남아공월드컵 안전하게 즐기기'가 가뭄 끝의 단비처럼 좋았습니다. 그리스전을 여유 있게 승리로 일궈낸 우리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파이팅! 대~한민국'을 외치는 국민들도, 비지땀을 흘리며 종횡무진 달리는 태극전사들도 끝까지 안전하게 월드컵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2.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름 없이 숨져간 용사들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해를 찾아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일 또한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으면 합니다.
3. 자연휴양림에 대한 여행정보를 실어주세요.

홍경석 대전 서구 둔산동

1. '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도난, 분실 걱정 끝!' 기사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83퍼센트는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적극적 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전거 전용주차장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2. 지난해 중국 여행을 한 바 있습니다. 상하이에 가서는 당연히(!) '상해임시정부' 청사에도 들렀지요. 그러나 그 작고 허술한 누옥(陋屋)을 목도하자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개처럼 목숨을 버린 독립투사와 그에 준하는 유공자에게 국가적 포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 한 명도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3.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여름휴가 장소를 소개해주세요. 교통편과 맛집도 곁들이면 금상첨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3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SAFE KOREA!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매월 4일은 전기안전의 날입니다

Ever Safety
전기안전,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고객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희망의 빛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전기,
바로 알고,
제대로 쓰면,
정말 안전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1초 경영", 빠르고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한 기분좋은 습관

- **하나**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합시다
- **둘** 습기가 있는 곳은 누전차단기를 설치, 감전에 대비합시다
- **셋** 전선이나 차단기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합시다
- **넷** 낡은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 합시다
- **다섯** 올바른 전기기구 사용으로 전기화재를 예방합시다

KESCO
www.kesco.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Speed-call ☎1588-7500



4



5





1



2



3

세상을 뒤흔든 감동의 함성 "대~한민국"

하나 된 우리는 위대했다

웃고 울고 춤추고 환호했다. 이기면 기쁘고 져도 기죽지 않았다. 태극전사들의 표정 하나, 움직임 하나가 그대로 감동이었다. 저 무대가 어떤 무대인가. 4년 동안 쏟아낸 땀방울 하나하나가 바다를 이루고 나서야 겨우 올라설 수 있는 무대 아닌가. 단지 저 그라운드에 선 것만으로 감격의 눈물을 주르르 흘린 북녘 청년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고맙기만 하다. 이겨도 자만하지 않으며 져도 주눅 들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내는 든든한 전사들이 눈물나게 고맙다. 아쉬움? 그건 순간이다. 황홀한 피날레 앞, 잠깐의 짜릿한 변주(變奏) 같은. 16강 도약의 마지막 일전이 다가왔다. 4년을 벼르고 벼른 순간이다. 우리는 믿는다,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안다, '준비'와 '과정'의 소중한 가치를. 승부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된 우리는 이 여름 진정 위대했다.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1 "태극전사들의 가슴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을 뒤덮고 물결치는 대형 태극기.

2 "블루 드래곤이 해냈어!"
이청용이 아르헨티나와의 예선 2차전 전반 종료 직전 기습 골을 터뜨리자 환호하는 팬들.

3 "한국 대표팀 너무 좋아요, 막걸리만큼 좋아요."
시청 앞 광장에서 붉은색 티를 입고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막걸리 찬가를 외치는 파란 눈의 '미녀 삼총사'.

4 태극전사 수호신들이 메시에게 불호령을….
얼굴에 강렬한 분장을 한 청년들이 아르헨티나전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5 "선수들이 고생하는데 국민들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월드컵 미녀들이 응원전을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戰 투혼을 불태워라

예선 마지막 경기에 강한 '매직' 살려야

묻지도 말고, 따질 것도 없는 경기다. 무조건 '올인'이다. 지면 희망이 없다.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팀은 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다. 1986년 이탈리아전(2–3 패), 1990년 우루과이전(0–1 패), 1994년 독일전(2–3 패), 1998년 벨기에전(1–1 무), 2002년 포르투갈전(1–0 승)…. 예선 3차전에서 만난 강호에게 동원 가능한 전력과 정신력, 집중력을 모두 퍼부어 강한 인상을 심었다. 나이지리아전에서도 그 전통은 이어져야 한다. 한국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아프리카 '슈퍼이글스'의 날개를 찍어누르기를 기대하며….


연합

나이지리아 공격수들은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가 강점. 따라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압박, 돌파에 뚫렸을 경우에 대비하는 커버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나이지리아 공격의 시발점인 오뎀윙기에(왼쪽).

6월 23일(수)
03시 30분

2패로 예선탈락이 거의 확정적인 나이지리아. 하지만 그리스가 아르헨티나를 잡고, 자신들이 한국을 꺾는다면 실낱같은 희망을 걸 수 있기에 초반부터 총공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홈이나 다름없는 나이지리아 팬들의 응원 열기도 최고조로 극성스러워질 것이므로 전반 초반 5분간의 경기 흐름이 매우 우려스럽다.

나이지리아가 예선 첫 경기인 아르헨티나전에선 야쿠부(에버턴)를 최전방 중심으로 놓고 양 측면에 오비나(인터밀란)와 오바시(호펜하임)를 배치해 효율적인 공격을 노렸다면, 한국과 맞붙는 마지막 경기에선 득점력이 뛰어난 마르틴스(볼프스부르크)까지 야쿠부와 함께 투톱으로 가동해 초반부터 거세게 한국 문전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실상의 에이스이자 공격의 시발점인 오뎀윙기에(로코모티브 모스크바)가 좌우 측면에서 중앙 공격수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공격진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선 월드컵 직전 북한과의 평가전에서 선발로 나와 활발한 공격력을 선보인 오뎀윙기에–야쿠부–오비나 스리톱이 다시 나설 가능성도 있다.

개인기 좋은 공격수 습관 역이용… 실수 유도해야

역시 주 득점 루트인 야쿠부의 1차 봉쇄 여부가 초반 경기 흐름을 좌우할 변수다. 야쿠부는 측면과 중앙을 부지런히 오가며 문전 쇄도를 즐기는 스타일. 상대 수비를 등지면서 골문으로 향하는 피벗 플레이는 물론, 세트플레이 때 탄력을 이용한 헤딩에도 능하다. 공간의 여유를 주면 어떤 상황이건 여지없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뿐만 아니라 오뎀윙기에와 짝을 이룬 콤비네이션 플레이도 상당히 위협적이라 우리에겐 조직적인 협력 수비가 요구된다.

이미 지난 3월 코트디부아르와 벌인 평가전(2-0 승)을 통해 대표팀은 가상의 '야쿠부'에 대한 적응력을 시험한 바 있다. 당시 차두리-조용형-곽태휘-이영표가 나선 포백 라인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디디에 드로그바(첼시)를 효과적으로 봉쇄한 바 있다.

아프리카 공격수들의 특징은 특유의 탄력과 스피드를 이용해 드리블을 즐긴다는 점이다. 그만큼 볼 소유 시간이 많다는 것인데, 이를 우리 수비로선 적절히 이용해 공격수 스스로의 실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아프리카 선수들은 자신의 플레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제 풀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 공격수들에 대해서도 침투 공간을 최대한 봉쇄하는 수비 전략이 요구된다.

"철저히 중원 압박하면 손쉬운 경기 펼칠 것"

그리스전에선 상대 선수들이 돌파보다는 무조건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데 급급했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측면 윙백들까지 수시로 오버래핑에 가담하기 때문에 공격-미드필드-수비 간의 '3선'이 최대한 간격을 좁혀 상대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촘촘한 방어막을 유지해야 한다.

나이지리아 역시 한국의 공격에 대해 상당한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이다. 특히 박주영의 AS모나코 팀 동료인 미드필더 하루나, 그리고 이청용과 볼튼에서 함께 활약하는 장신의 쉬투가 중앙 수비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국 공격 양 축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상대에게 읽힌 상태에서 빈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나이지리아가 수비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공격 일변도로 나올 경우 오히려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기가 용이해진다.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얻는다면 역습 효과가 더욱 불을 뿜을 수 있다.

예선 첫 경기에서도 한국은 그리스가 첫 골을 실점한 뒤 수비를 끌어올리자 배후 공간을 박지성, 기성용 등이 적극 활용해 박주영에게 득점 찬스를 제공한 바 있다. 게다가 박주영은 프랑스 리그에서 아프리카 수비수들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낼 자신감도 충분하다.

나이지리아의 측면 수비수들이 적극 오버래핑에 나서는 점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도 예선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의 측면 수비수들이 비운 공간을 부지런히 공략했다. 특히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였던 타이우(마르세유)가 그리스전에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해 한국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대체자원인 에치에질레(렌)도 햄스트링 이상으로 한국전 출전이 어려워 이청용으로부터의 공략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연합

나이지리아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경우 수비 배후공간을 노리는 박지성에게 많은 득점 찬스가 찾아올 수 있다.

"개인기가 뛰어난 나이지리아 공격수들에게 일대일 기회를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원을 압박한다면 예상외로 손쉽게 경기를 펼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공격적 성향이 강한 점을 역으로 이용해 측면 수비의 뒷공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승산이 충분하다."

결국 공수 전체적으로 조직력보다는 개인 기량을 활용하고 공격 성향이 강한 나이지리아의 팀 컬러를 얼마나 적절히 역이용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박문성 SBS 해설위원도 "개인기가 뛰어난 나이지리아 공격수들에게 일대일 기회를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원을 압박한다면 예상외로 손쉽게 경기를 펼칠 것"이라며 "또한 아프리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공격적 성향이 강한 점을 역으로 이용해 측면 수비의 뒷공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대부분이 예선 마지막 대결이었다. 감독이 중간에 경질돼도, 16강 탈락이 확정됐어도 마지막 예선 경기만큼은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다. 이번에야말로 그 투혼이 '매직'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세계 녹색성장 씨앗 '한국'에 심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출범

우리가 주도한 최초의 국제기구가 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6월 16일 출범식을 갖고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부는 2012년까지 GGGI를 세계 녹색성장을 전담하는 국제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성장 분야의 국제기구가 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출범을 선포했다.

지난 6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이 열렸다. 이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 계획을 공표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출범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보여줄 GGGI의 창립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GGGI는 녹색성장의 비전을 넘어 실천을 위한 방법론을 전 세계에 제시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며 "2012년까지 GGGI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간 조약에 따른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의 항구적 공동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설립 주도국으로서 GGGI의 초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GGGI를 동아시아 기후포럼과 연계해 매년 '글로벌 녹색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아시아 기후포럼은 2008년 일본 도야코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최초의 국제기구

이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성장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녹색성장 우수 사례와 녹색기술을 공유할 것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을 제시했다. 또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녹색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와 금융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GGGI가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GGI의 초대 이사회 의장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맡는다. 기후변화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니컬러스 스턴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와 토머스 헬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공동부의장으로 발탁됐다.

인도네시아·브라질 등 3개국 녹색성장 우선 지원

6월 15일 개최된 GGGI 이사회에는 이들과 함께 '클라이미트 워크스(Climate Works)' 재단의 안드레아 머클 사무총장,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등이 이사로 참여했다.

한승수 의장은 "이제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배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스턴 부의장은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 본보기가 되고 있는 한국의 녹색성장 리더십은 GGGI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선진국을 모방했으나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배우도록 하겠다. 개발도상국의 성장 본보기가 되고 있는 한국의 녹색성장 리더십은 GGGI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GGGI는 단계적으로 15인 안팎의 글로벌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국제적 공개 채용을 통해 최고 수준의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물을 연구소 대표로 뽑기로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3개국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계획 수립을 우선 지원하고, 올해 안에 12개국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을 위한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GGGI의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3년간 매년 1천만 달러씩 지원할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www.gggi.org

취업도 하고 녹색성장도 하고

녹색일자리 박람회·취업컨설팅 박람회 개최

6월 19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과 그 주변에서 '2010 녹색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2008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래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녹색 분야의 일자리 박람회다.

이날 행사에는 SK에너지, 포스코파워, 대한잉크, 일진반도체, 한국바이오시스템 등 약 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연구개발, 설계, 생산,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구직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했다. 대기환경기사, 수질관리사, 전기기사 등 녹색 자격증 컨설팅도 진행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태양열·풍력 발전기 전시와 전기 오토바이 시승, 폐현수막으로 재활용 가방 만들기 및 완성품 전시 등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이벤트도 선을 보였다.

경북대 이장우 교수가 진행한 명사특강 '파워 1인 창조기업'과 김정훈 코이카(KOICA) 홍보관이 '비전을 이루는 열정과 도전'을 주제로 진행한 청년리더 멘터특강은 구직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대학생 한정선 씨는 "볼거리도 많고 필요한 정보도 다채롭게 얻을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다"며 "정부가 기업과 협력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녹색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희망 직종별 일대일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2010 취업컨설팅 박람회'가 함께 열렸다. 이 행사는 기존 채용 박람회와 달리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사전에 선정된 구직자를 상대로 현장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는 점이 이채로웠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노동부의 취업 포털인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해 사전에 모집한 1천명의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았다.



6월 19일 열린 2010 취업컨설팅 박람회에서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사전에 선정된 구직자를 상대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G20 서울 정상회의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온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코리아' 정상외교 시동

이명박 대통령이 캐나타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토론토 정상회의가 끝나면 다음은 서울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에서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한 뒤 파나마와 멕시코를 국빈 방문, '글로벌 코리아'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정상외교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6~28일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자유화 등 앞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합의 내용의 추진상황 점검 ▲최근 유럽 재정악화로 부각된 재정건전성 문제 및 경기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입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게 된다.

캐나다 방문에 이어 6월 28~30일에는 파나마를 공식 방문해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통상·투자, 자원, 인프라, 영사,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또 G20,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동아DB

또한 파나마에서 6월 29일 열리는 제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미지역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며, SICA 회원국 정상들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캐나다 방문 이어 파나마·멕시코 국빈 방문

이 대통령의 파나마 방문은 1962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 이뤄진 정상 방문으로, 중미지역의 전통 우방국이자 우리의 중미지역 최대 교역국인 파나마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나마 방문을 마친 뒤에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항공, 인프라·에너지, 문화, 영사 등 주요 양자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은 세계 13위의 신흥 경제대국이자 중남미지역 핵심 선도국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공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

글 · 박경아 기자

“국민 모두의 잔치로 만들겠다”

김희범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조영철 기자

다음은 서울이다. 제4차 G20 정상회의가 6월 25~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됨에 따라 G20 서울 정상회의(올 11월)가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정상회의는 과거의 어느 회의보다 의미가 크다.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서울 정상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김희범 홍보단장을 만났다.

요즘 어떤 준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나.

G20 정상회의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마감한 G20 심벌 공모전에는 아마추어 고교생 등을 비롯해 2천3백여 건이 출품됐다. 지난 5월의 캐치프레이즈 공모에도 4백 건이 응모됐다. 심벌 공모전은 7월 초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작들은 전시할 계획이다. 또 G20 장·차관 회의를 인천, 부산, 광주, 전주 등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면서 전국에 ‘G20 붐’이 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 본회의 준비 상황은.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를 비롯해 회의장과 숙소, 의전, 보안 등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본회의는 기자들만 5천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도 4백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울 정상회의는 기존의 어떤 회의보다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회의다. 세계경제의 미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 널리 알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서울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국민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얼마 전 G20 본회의가 열리게 될 서울 강남 코엑스의 영업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코엑스 인근의 많은 관공서나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안과 통제에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나 캐나다 토론토 등의 경우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 인근에서는 자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국익을 얻기 위해 배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동아DB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 조사 결과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NGO는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명확한 진상조사 결과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그러자 참여연대의 행동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가 이에 대한 견해를 전해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지난 6월 14일 민군합동조사위원회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브리핑하기로 한 하루 전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국내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안보리에 보낸 서한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5월 25일 만든 A4 용지 20장 분량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2장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가 의혹투성이"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심각한 정치·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의도가 명백했다.

참여연대 서한, 어떤 공익을 위한 일인가

합동조사단에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의 조사단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적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결과'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포스텍 교수 등 과학자들도 참여해 밝혀낸 객관적인 결과물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이 인정하고 지지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가관과 도덕성을 가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서한을 받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국은 정부의 일을 NGO가 국가 밖에서도 방해하나. 정말 웃기는 나라'라며 비웃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참여연대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부기구를 뜻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관련 학계에서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NGO의 행위에는 반드시 '공익'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이번 행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공익을 위한 일이란 말인가.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국가 위신 떨어뜨리지 말아야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46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참여연대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나 정치인, 학자들은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국민 모두가 느끼는 이 생각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과 같이 NGO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NGO 본연의 임무인 '공익'을 위해, 또 소속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의 목표인 대한민국의 유지 발전을 위해 이러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히는 바다.

참여연대는 과연 찢긴 천안함을 실제로 보았는가. 합동조사단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았는가. 필자는 천안함을 직접 보았다. 천안함의 그 처참하게 찢긴 모습 앞에 70여 명의 기자들은 숙연해졌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또 합동조사단의 설명회를 들어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보다 몇 배나 많고 자세하다. 언론 보도는 각 언론사들의 구미에 맞는 내용만 보도되는 경우가 많지만, 합동조사단 설명 전체를 모두 들어본다면 천안함 침몰 원인이 외부 공격이라는 데 대해 의문을 달지 못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누구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틀 속에서 의사표시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참여연대의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섰다. "팔레스타인 시민단체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변호하는 꼴"이라는 어느 외국 외교관의 평가는 참여연대의 이번 서한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준다. G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청와대 오찬 때 천안함 사태로 전사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를 만나 위로했다. 윤 씨는 자신이 받은 국민성금 가운데 1억원을 이 날 안보성금으로 기탁했다.

故 민평기 상사 어머니 안보성금 1억 기탁
참여연대 찾아 "이제 제발 그만해달라" 당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요? 왜 우리 장병들을 두 번 죽이려고 그래. 그럼 누가 죽였단 말입니까."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막내아들 민평기(34) 상사를 잃은 윤청자(57) 씨는 최근 참여연대가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했다.

윤 씨는 참여연대 서한 발송 소식을 듣기 전날인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국가유공자 및 천안함 희생자 유족 초청 오찬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행사 전 1억원짜리 수표를 안보성금으로 내놓았다. 윤 씨는 성금을 내면서 이 대통령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자신을 '자식새끼 하나 지키지 못한 죄 많은 어미'라고 소개했다. 그는 "적은 성금이지만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무기 구입에 써달라"며 이어 "정치인들이 제발 안보에서만큼은 하나 되고 한목소리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에 힘써달라"고 썼다.

윤 씨 외에도 많은 국민이 안보성금을 보내왔다. 인천에 사는 지체장애 2급인 김병기(41), 김형태(40), 한수(41) 씨는 편지와 함께 53만원을 동봉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라에 힘을 보태고 보답하기 위한 마음이 생겨 적은 돈이나마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해주시면 좋겠다"며 성금을 보냈다.

6 · 25전쟁 때 학도병으로 싸웠다는 경기 의왕시의 김원도 씨도 국가안보를 위해 써달라며 편지와 함께 50만원을 보내왔다.

글 · 김민지 기자

저탄소 생활실천
그린에너지패밀리
www.gogef.kr

공공기관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28℃이상** 유지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팍! 아껴!
겨울철 불우이웃 팍! 돕자!



끄기 점심시간 조명, 컴퓨터

지키기 여름철 적정실내온도 (26℃ 이상)

풀기 넥타이

우리 함께 여름철 전기절약 꿈을 이루어 보아요

- 1만개소의 건물 참여
- 10만MWh의 전기절약
- 100만장의 연탄기증

■ **참가방법** : 그린에너지패밀리(**www.gogef.kr**)에서 6월말까지 신청
■ **참여대상** : 전국의 건물(사무실, 상업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병원 등)

MKE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SAFE KOREA 더 안전한 대한민국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한다.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국민들은 안전한 나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게 된다. 세계 각국 정부 또한 안전관리와 위기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안정된 정치,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성숙한 시민의식은 선진국의 기본이다. 또한 공해와 오염에서 벗어난 쾌적한 환경, 범죄와 사고·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여건이 갖춰지고,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때 'SAFE KOREA'는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일러스트 · 김영민



안전 선진국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태극전사의 현란한 발놀림을 응원할 때는 열정을 다하지만 뒷정리가 깨끗한 길거리 응원은 우리 사회에 싹트고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사회문화의 일면이다.

'안전 선진국' 꿈★은 이루어진다

전 세계인이 밤을 꼬박 새우고 광란의 열기를 분출하는 축제로 월드컵만한 게 또 있을까. 2010 남아공월드컵은 예상 밖의 승부로 짜릿한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으나 달갑지 않은 '선물'도 있다. 귀를 찢는 듯한 부부젤라 소음과 강·절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치안부재 상황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진입 문턱에 와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전 현주소는 어떨까. 밖을 내다본 김에 안도 한번 되돌아보자.

남아공 월드컵 그라운드에 선 선수들의 불평이 쏟아지자 부부젤라 금지설도 나돌았다. 우리나라와 그리스의 월드컵 경기가 끝난 후 한 포털사이트의 '최고 월드컵 댓글'은 "잘 들었다, 부부젤라. 5.1채널로"였다.

지금 남아공의 불안한 치안은 '애국심'만 탓할 문제는 아니다. 남아공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1백19달러(2008년)로 아프리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실업률이 극심(2007년 24.3 퍼센트)하고 흑백인종 간 빈부격차가 심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현실인 곳이다.

그럼 '곳간'이 넘치면 선진국인가. 미래로 갈수록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미래사회에서는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제 공조체제 아래 안전사회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가사회적 역량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웰빙(Well-being)' 현상은 미래사회에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욕구를 키우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안전사회 문화(Safe Society Culture)'가 보편적 현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의 요건을 '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

달러 이상'으로 본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9년 조사).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등 생산성 향상(31.3퍼센트)' '노사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정치·사회적 성숙(30.6퍼센트)'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질적 구조혁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5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명목 기준으로 2만 달러지만, 실질적으로 소비 가능한 수준을 보여주는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는 3만 달러에 육박한다.

경제학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르는 확실한 기준은 없다. 선진국은 'Developed Country', 개도국은 'Developing Country'일 뿐이다. 경제적 요소가 선진국의 필요조건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경제 외적 요소는 선진국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남아공의 치안부재 상황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어 우리나라의 안전부재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첫날 길거리 우중(雨中) 응원에서 알 수 있듯이 뜨거운 월드컵 열기 뒤로 슬그머니 다가온 것이 장마철이다. 기상청 예보로 나이지리아와의 마지막 조별예선이 치러지는 6월 셋째 주부터 장마철에 들어간다. 장마로 문을 여는 여름철은 산업재해와 휴가철 사고가 어느 때보다 많은 계절이다. 최근 8년간(2000~2007년) 질식재해로 인해 1백63명이 사망했으며, 여름철(6월~8월)에 전체 사망자의 40.4퍼센트인 66명이 사망했다. 소방방재청의 안전사고 분석 결과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 주말 오후 2~6시에 가장 많은 물놀이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의 실내사격장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8명 등 10명이 숨졌다. 이로 인해 나라 안팎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국가로서의 체면도 손상을 입었다.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 요소보다 경제 외적 요소에서 선진국 문턱에서 더 멀다.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경우 화물차 사고, 보행자 사고 등 후진적 사고가 대다수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하나만으로도 1년에 약 6백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9년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 인적 재난 근절과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2015년까지 OECD 15위 안에 드는 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후진적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안전제도 개선·의식 선진화 종합대책 마련

지난 5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안전 선진국 실현방안 안전문화 토론회'에서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박두용 교수는 "안전은 기술과 과학이 뒷받침돼야 하며 정치, 사회, 경제, 사회, 문화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면서 "안전사회는 우리 사회가 안전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할 때 그만큼 확립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방재를 위해 함께 힘을 쏟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지역주민은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방재의식, 지방정부는 재해요인 사전 해소를 위한 조직과 예산의 집중, 중앙정부는 법·제도·예산·기술개발을 통한 기반 조성이라는 각 주체의 책임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 방재연구실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방재를 위해 힘을 쏟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지역주민은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방재의식, 지방정부는 사전 재해요인 해소를 위한 조직과 예산의 집중, 중앙정부는 법·제도·예산·기술개발을 통한 기반 조성이라는 각 주체의 책임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그리스의 월드컵 경기가 끝난 뒤인 6월 15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주한 미국대사관 공식 카페에 서울광장에서 한국 대 그리스전 경기를 관람한 사진을 공개하고 "경기가 끝났을 때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한곳에 쌓는 등 자리를 정리했다. 일요일에 다시 광장을 지나가다보니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는 소감을 올렸다.

칭찬이 기분 나쁘지는 않다. 선진 한국으로 가는 첫걸음은 이렇게 공동체 활동에서 이미 싹트고 있다. 남아공월드컵에서 부부젤라의 소음을 뚫고 한 걸음씩 '꿈'을 향해 다가가는 태극전사들처럼. OECD 15위권 안전 선진국이란 목표도 꿈은 아닐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G

글 · 박경아 기자

"깨끗한 물과 공기는 모든 인간의 권리"

수질·대기환경 개선안 적극 추진

물과 공기가 더 맑고 더 깨끗해지고 있다. 환경부가 발간한 〈환경백서〉에 따르면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 45.2퍼센트에서 2009년 52.7퍼센트로 상승했다. 같은 시기 서울시 미세먼지(PM-10·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1마이크로그램에서 53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졌다.



동아DB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탁도, 맛과 냄새, 잔류염소 등 8개 항목을 까다롭게 관리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물과 공기의 질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올해 '세계 물의 날' 표어는 '건강한 세계를 위한 깨끗한 물'. 인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수질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맑은 공기도 소중하다. 벨기에 루뱅대의 판 파레이스 교수(경제사회학)는 "대기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천연자원"이라고 정의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환경지속성지수(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가 중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이 지수는 한 국가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다. 수질, 대기, 생물다양성 등 환경 요소 외에도 국민소득, 민주화, 국제사회 기여도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가늠하는 것이다.

2004년 한국은 환경지속성지수 평가 대상 1백46개국 중 1백22위로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0년 평가에서는 1백63개국 중 94위로 올랐으며, 정부는 이 지수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삼아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어디나 '깨끗한 물' 공급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정책 추진 방향엔 '환경 부문이 경제사회 부문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 향상의 지렛대라는 인식 아래 경제와 환경 부문의 동반전략을 추진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세계 각국이 힘쓰는 환경지속성지수 개선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우선 물 부문의 환경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수질 개선과 물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수질 개선 부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국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2008년 정수처리시설 종합개선책을 수립해 시설 개선, 운영 효율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탁

도, 소독부산물, 맛과 냄새, 잔류염소, 노후시설 등 8개 항목을 중점 관리해 전국 수돗물의 안심 수준을 높이고 있다.

물 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노후 상수관을 정비해 누수율을 2007년 12.8퍼센트에서 9.5퍼센트대로 낮추기로 했다. 물의 재이용과 절약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물 사용량 추적(Water Footprint)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물 복지 측면에서는 농어촌 지역과 소외계층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평균(2008년 상수도 92.7퍼센트, 하수도 88.6퍼센트)보다 30~40퍼센트 밑도는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올해에만 상수도시설에 2천2백46억원, 하수도시설에 1천9백8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 자가(自家) 가구, 장기임대주택 가구, 홀몸노인 등이 사는 지역의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고, 수도관을 집안에 연결하는 일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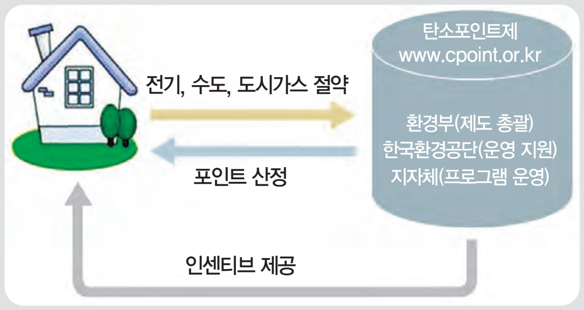
탄소포인트제로 에너지 아끼고 환경도 살린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대기환경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 앞서 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감축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중기 감축목표를 세우고 그 실천 방법으로 산업, 교통·수송, 가정, 상업 등 각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올 초부터 광역지자체 14곳, 기업 30곳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에 환경성 인증을 의무화하고 그린스토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탄소다이어트 2030' 사업은 탄소포인트제, 탄소성적표지제, 공해차량 제한지역제 등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2008년 11월에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수록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난 4월 2백32개 지자체가 참여해 1백만 가구를 돌파했다.

세금 줄이고 인센티브 받는 탄소포인트제



* 자료 :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옥선(52·수원시 화서동) 씨는 "매달 전기세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가 적립되고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니 절약 습관이 몸에 밴다"며 "월 3만5천~4만원씩 내던 전기료를 지금은 2만~3만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빼놓기, 여름에 김치냉장고 한 칸만 사용하기, 안 보는 텔레비전 끄기 등 사소한 실천만으로도 이만큼 줄일 수 있다"며 주변에 탄소포인트제 동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팀 이남일 과장은 "1백만 가구가 월 평균 35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하면 국가적으로 연간 17만8천여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나무 3천5백61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할 만큼 대기환경에 큰 도움을 준다. G

글 · 최은숙 기자

탄소포인트제 www.cpoint.or.kr

숫자로 보는 물·대기 환경지표 개선 계획

종류	지표	기존	계획
물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47.7%(2008년)	72%(2013년)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48%(2008년)	68%(2013년)
	약수터 수질 기준 초과율	21.9%(2008년)	10%(2013년)
	상수관 누수율	12.8%(2007년)	9.5%(2014년)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도입률	21.5%(2007년)	30%(2012년)
대기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	54㎍/㎥(2009년 서울)	20~40㎍/㎥(2014년)
	행정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율	20%(2009년)	50%(2012년)
	지자체 탄소성적표지제	84개(2009년)	1백50개(2010년)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1백만 가구(2010년 4월)	3백만 가구(2011년)
	수변구역 등 식재 계획	1백만 ㎡(2010년)	2천만 ㎡(2013년)

* 자료 : 환경부



동아DB

기업들도 탄소감축 실천운동에 나섰다. 사진은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량을 표시한 탄소라벨 부착 상품들.


동아DB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먹을거리 믿을 수 있게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식품안전 및 위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생산·유통 시설 참관, 원산지 점검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동아DB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 학교 주변 전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담관리원이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정은연(45·서울 사당동) 씨는 지난 6월 3일 충북 청원군에서 농식품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왔다. 정 씨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소비자연맹이 마련한 '엄마와 함께하는 농식품 안전여행'에 참가해 충북농업기술원, 육묘장, 애호박 재배 하우스, 애호박 선별장,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등을 둘러봤다.

엄마와 함께하는 농식품 안전여행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식품의 안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품종연구 과정, 재배 과정, 수확 후 선별 포장 과정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인터넷·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식품안전 정보 확인 가능

아이들 때문에 식품안전에 관심이 많아 평소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산물을 주로 구입했다는 정 씨는 "이번 여행을 통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GAP)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며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GAP마크가 부착된 농산물을 구입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식품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활동에는 '국민참관인'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는 국민참관인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정책 설명회 참관, 안전식품인증제(HACCP) 지정업체 방문, 수입식품 신고절차 및 시험분석센터 견학 등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제도. 2006년 시작돼 현재 1백50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민참관인으로 활동하는 정진숙(47·서울 상계동) 씨는 "HACCP 업체를 찾아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믿고 먹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아이들에게도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먹을 때도 HACCP 마크를 꼭 확인하라고 이른다"고 전했다.

이처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식품안전 및 위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농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됐다. 시행 1년 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 주변 전체(8천51곳)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6천3백5명의 전담관리원이 상시 감시를 실시하고, 3백6곳을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했다. 88개 업체 6천6백84개 품목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분석했으며,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33개 외식업체의 1만1백34개 매장에서 영양 표시제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어린이들도 과자, 빵, 햄버거 등 즐겨 먹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가 영양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의 높고 낮음을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권고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가 기존의 영양 표시만으로는 위해 영양성분의 높고 낮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영양성분 함유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신호등 표시 식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단일 영양성분이 대부분이라 단일 영양성분 외에는 녹색으로 표시돼 어린이가 건강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탕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과 식품의 특성상 특정 영양성분이 많아 적색 표시가 불가피한 초콜릿,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은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린이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교육교재를 발간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여행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와 대처방법 등을 마블게임, 퍼즐 맞추기, 만화, 동화 등의 형식으로 꾸몄다.

이 교재는 농촌정보문화센터(02-3498-6522)에서 받아볼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어린이교육사이트 '으라차차(www.classfarm.com)', 농촌정보문화센터(www.cric.re.kr),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 go.kr)에서 e북으로도 볼 수 있다.

동아DB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쌀과 배추김치도 음식점 면적과 상관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통해 농축수산식품의 안전 정보 및 위해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원산지 위반업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알리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포털 식품나라에서도 부정·불량식품의 긴급 회수, 행정처분, 위해요인, 식중독 발생 정보 등 식품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정보사이트에 들어가면 수입식품 확인, 수입식품 통계, 수입검사 진행 현황, 수입 부적합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수입식품으로 등재되는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후 1일 이내에 자동 공개되므로 소비자가 시중에서 구입한 수입식품이 정식 검사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입 부적합 정보를 통해 수입 단계의 검사 결과 부적합해 반송되거나 폐기된 식품 정보도 즉시 알 수 있다.

“수입식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쇠고기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로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올 12월에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식품 수입국으로, 수입 건수는 연간 약 25만 건, 수입액은 98억6천만 달러(2008년 기준)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위해식품 수입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산 식재료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출 국가, 국가별 제조업체, 수입 품목에 따라 부적합 사례를 분석해 검사 비율을 최고 1백 배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고, 검사 항목도 부적합 이력과 국내외 위해 정보를 고려해 부적합 항목을 중점 검사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된다. 오는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음식점 면적에 관계없이 65만 개 전 음식점에 적용된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단속 강화

현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백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막걸리를 비롯한 주류,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수입식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쇠고기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로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올 12월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냉동 여부 등 12자리 수입 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번호 8226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 수 있다.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은 지난해 31만8천여 업소를 조사해 5천6백35개 업소(허위표시 2천8백11건, 미표시 2천

8백24건)에 대해 형사입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올해도 1분기까지 6만8천5백54개 업소를 조사해 1천4백74개소를 적발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지난해 6만3천9백34건이 실시돼 1천5백3건이 출하 연기 또는 폐기됐다. 올해도 1분기에 6천3백40건을 조사해 2백69건을 적발해 폐기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 1만4천4백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7건(0.67퍼센트)이 회수 등의 방법으로 시장 격리되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대폭 강화해 지난해에는 2008년 1천3백39건보다 5백33퍼센트 늘어난 7천1백36건을 검사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7천 건을 검사했다.

이 같은 식품안전 검사 강화로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중 99퍼센트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량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7.6퍼센트가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5백10건의 식품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99.4퍼센트가 기준에 적합했다.

또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등어, 갈치, 광어, 미역, 김, 다시마 등의 중금속 함량 조사에서도 모두 국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이성도 사무관은 "정부는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사전예방적인 위해관리,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식품안전정보서비스 www.foodsafety.go.kr
식품나라 www.foodnara.go.kr
수입식품정보사이트 www.foodnara.go.kr/importfood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www.meatwatch.go.kr

동아DB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의 99퍼센트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량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씻고… 익혀 먹고… 끓여 먹으면 식중독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1년 중 가장 더운 7, 8월에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 6월에 더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식중독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5, 6월에 68건(환자 2천9백32명)이 발생해 7, 8월의 65건(환자 1천2백9명)보다 환자 수가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5, 6월이 일교차가 커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단체관광이나 야외 수련활동 등이 많기 때문이다.

식중독 예방의 3대 요령은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식중독은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와 손등까지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어야 한다. 특히 음식을 준비하기 전이나 조리를 하다가 다른 것을 만졌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주방을 청결히 하고 조리대는 염소소독을 하는 등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고기류와 채소류를 조리할 때 칼, 도마, 그릇 등은 구분해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가열하지 않은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그 육즙에는 유해한 미생물이 있을 수 있어 식품 조리 및 보관 중에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섭씨 5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거나 60도 이상으로 뜨겁게 보관하는 등 온도관리도 중요하다.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한다. 또 음식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섭씨 74도 이상에서 1분 넘게 조리해야 한다. 또 샐러드 등 가열하지 않는 음식은 여름철에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도시락을 준비할 때는 밥과 반찬을 충분히 식힌 후에 그릇에 담고, 김밥 속 재료도 가열 조리한 후 식혀서 사용한다. 도시락은 아이스박스에 넣거나 얼린 물병과 함께 보관하고, 되도록 빨리 먹는다.

만약 설사를 2회 이상 계속하면서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식중독이 의심되므로 가까운 병원을 찾는다. 노약자나 영·유아가 구토를 할 때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히고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충분히 먹여야 한다.

식중독과 함께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비브리오 패혈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질환이나 만성질환자, 노약자의 경우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어패류는 껍데기가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조리해야 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음식뿐 아니라 원인균에 오염된 해수가 상처 부위에 침입해 감염될 수도 있으므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이, 24시간 안전시스템 만들 것"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등 관련법 크게 강화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에 따라 길게는 50년 동안 철창신세를 져야 한다. 전자발찌도 30년 동안 차고 다녀야 한다.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므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지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일러스트 · 이우정

#1 지난 4월, 국내 외국어학원 등에서 3년 4개월간 영어강사로 일했던 미국인 1명과 영어강사로 취업하려고 회화지도 비자를 신청한 미국인 2명에 대해 비자발급 불허와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과거 자국에서 저지른 성범죄 전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영구 금지'로 변경하고, 국내는 물론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입국을 영구 금지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규정을 강화했다.
앞으로 외국인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입국 심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영구 입국금지 조치된 외국인은 12명이다.

#2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생이 대낮에 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아동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피해아동에 대한 1차 외상치료 조치와 함께 아동 성폭력 피해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연계해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자 가족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평가, 자조모임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은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상황과 향후 지원계획 등을 확인하는 한편, 원스톱지원센터의 진술녹화 장비를 사용해 수사 과정의 반복 진술 등에 따른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연합
아동 성폭력 피해 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놀이치료사가 해부학 인형을 이용해 어린이의 성폭력 피해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아이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불안해 못 견디겠어요." 등교하던 여덟살짜리 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또다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아동 성폭행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온 정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4월 '여아 보호와 여성폭력 방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아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총리실 주재로 정부 부처 합동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성범죄 예방조치 강화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골자로 한 아동 안전대책을 세웠다.

성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매년 1천 건 이상의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조두순 사건도 그중 하나. 그런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만행의 장본인인 조 씨가 통제력이 부족한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되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를 계기로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의 뜻을 반영해 새로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지역주민에게 우편 고지 검토

이에 따라 조두순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범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선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성폭행을 당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도 크게 줄였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3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고소 없이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대상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한 대목도 눈에 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세부 절차를 마련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교육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3백 시간으로 의무화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1백 미터 이내 가해자 접근 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보호처분을 선고해야 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모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은 물론 개인과외 교습도 할 수 없게 됐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최장 30년까지 늘려

법무부는 성폭행, 납치, 강간 등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범죄의 유기징역형 기본형량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가중 처벌을 위한 형량의 상한선도 25년에서 50년까지로 2배 늘렸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3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로 늘어난다.


조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호곡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의 안전지도를 받으며 줄을 서서 등교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의무는 이미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부착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거 이전이나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 전과자에게 발찌와 함께 휴대전화처럼 생긴 교신장치를 착용하게 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의 개인휴대단말기(PDA)로 통보되는 전자감독 시스템. 그동안 탁월한 재범 억제효과가 검증됐다고 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따르면 2008년 9월 1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 5백 82명 가운데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1명으로 동종 재범률이 0.17퍼센트에 그쳤다. 다른 죄를 다시 저지른 4명을 포함해도 전체 재범률이 0.86퍼센트에 불과했다.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14.8퍼센트)에 비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치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도 더욱 조직

적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아동 전담 검사제'를 확대 강화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폭력 피해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전국 9곳에서, 성폭력 관련 지원센터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 16곳에서 운영하는 한편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합한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오는 7, 8월에는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같은 신규 통합센터가 3곳 더 확충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응급 구조, 신고, 소송 등 법적 지원을 담당한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법률·수사에 대한 통합 지원을 3백65일 24시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집을 떠나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 2곳을 올해 상반기에 설치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의 근절을 목표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6곳, 상담소 2백75곳, 보호시설 66곳, 원스톱지원센터 18곳을 전국 곳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07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50.4퍼센트로 부부폭력이 40.3퍼센트, 아동학대 66.9퍼센트, 노인학대가 6.0퍼센트에 이른다. 가정폭력의 평균 지속기간도 11년 2개월로, 피해자의 48.2퍼센트가 10년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학생보호 안전시스템 모든 초등학교서 시행

어린이 주변의 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등교에서 귀가까지 24시간 학생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배움터 지킴이와 교직원, 방과 후에는 관내 경찰과 자원봉사자,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해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폐쇄회로TV(CCTV) 관리자는 주간에는 교무실이나 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를 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조기 등교, 방과후 활동 전의 비는 시간 등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에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시청각실, 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운영학교도 지난해 40개교에서 올해 1천7백24개교로 늘어나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학부모에게 전송해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도 실시될 계획이다.

휴가철에 대비해 민생치안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여름철 특별 방범활동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휴가철 주택가 빈집털이와 노출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 인력을 배치해 피서객의 안전 확보와 청소년 선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영등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 당시 마련된 아동 안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재발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조두순 사건 이후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책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확고한 실천인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성범죄 전과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어린이 주변의 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진다.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운영학교도 1천7백24개교로 늘어나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학부모에게 전송해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도 실시될 계획이다."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 낯선 사람 대응능력 키워야



손석한 정신과 전문의

어린이 성폭력은 여느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후약방문식 대응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과거에는 어린이 성폭력이 남의 집 얘기처럼 들렸을지 모르나 지금은 우리 아이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들은 내 자녀에게도 언제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음 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린이에게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인지시킨다. ▲혼자 있는 상황 ▲낯선 어른이 시야에 들어온 상황 ▲낯선 어른이 말을 건네는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둘째, 실제 성폭력 사건을 야기할 만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지 말고 "다음에 방문하세요"라고 답하도록 가르친다. 이 같은 대처 능력은 실제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므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역할극(Role play)'을 하며 평소에 연습해두는 것이 좋다.

어른이 '과자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고 꼬드길 때도 "싫어요"라고 딱 잘라 거절하거나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뛰어가도록 연습시킨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도 단호하게 "싫어요"라고 대답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일을 겪으면 즉시 부모에게 사실대로 털어놓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그림책이나 서적을 이용한 간접교육을 반복한다. 시중에는 등장인물을 동물로 설정해 성폭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 만한 책을 골라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아이가 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부모가 질문과 대답, 설명을 적절히 곁들이면 훌륭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될 수 있다.

넷째, '상황적 예방'에 힘써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노력에 달렸다. 최근 발생한 김수철 사건에서 드러났듯,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은 혼자 있는 어린아이를 노린다. 아이가 저항할 수 없을뿐더러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이를 잠깐이라도 혼자 둬서는 안 된다. 집 밖에서는 물론이고 집 안에서도 혼자 있게 되면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가장 바람직하고 강력한 예방법은 결국 부모가 늘 함께 있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집에 부탁해서라도 아이가 혼자 이동하는 시간을 없애야 한다. G



성폭력 예방법은 역할극의 형태로 교육시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 똑똑하게 고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 구매 요령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다. 문제는 수요가 많은 만큼 유사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사 건강기능식품 구매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요령'을 안내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식품이지, 건강을 책임지는 섭취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섭취만 하면 병이 나을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제대로 된 건강식품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 과장광고를 하지 않는다.

둘째, 제품 포장의 표시와 마크를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부터 전문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고 효능이 검증된 것만 인증을 해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 중에는 인증마크를 받지 못해 유사한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이를 간과하면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덥석 구입부터 했다가 먹지도 못하고 버리거나, 불필요한 성분이 많이 든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제품의 이름만 알아도 이 모든 내용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김성주 연구사는 "건강기능식품은 함유된 성분을 자세히 확인하고 정확한 용량을 잘 지켜 꾸준히 복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며 "대신 이런 효과를 보려면 구매할 때 표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품 이름만 알면 성분부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방법을 알리는 동시에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과 제품 선택 시 확인사항과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번 소비자 맞춤형 교육은 오는 9월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단체와 함께 전국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G

글 · 이은경 객원기자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hfoodi.kfda.go.kr, www.foodnara.go.kr



정경택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대형마트를 찾은 주민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며 제품의 기능성과 섭취 방법 등을 살피고 있다.



우리의 교통안전 의식은 최근 들어서야 사고의 심각성을 서서히 깨닫는 수준에 와 있다.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사랑한다면 교통안전부터…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운전자들은 핸들만 잡으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 오직 빨리 달리고 남보다 앞서는 데만 신경을 쓴다.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자만의 결과물이다. 도로에서 '철'이 드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서울 암사동에 사는 김종섭(36) 씨는 요즘 세 살 난 딸아이를 차에 태울 때마다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 뒷좌석 양쪽 문 안쪽에는 쿠션을 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차에 태우고 외출할 때는 별 생각 없이 딸을 뒷좌석에 앉히고 마음대로 놀도록 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깡충깡충 뛰거나 운전하는 아빠의 목에 매달리곤 했다.

김 씨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건 두 달 전 겪은 사고 때문이다. 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하마터면 아이를 잃을 뻔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뒷좌석에 서 있던 아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튕겨져 나온 것. 아이는 이마에 찰과상을 입고 오른쪽 손가락이 골절됐다.

"사고가 나도 뒷좌석에 있으면 크게 안 다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제 아이가 사고를 당하니 '아차' 싶더군요."

그 후 김 씨는 아이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매게 한다. 답답하다는 아이와 얼마간 승강이를 하지만 결국 승자는 김 씨다. 아이도 이젠 아빠의 고집을 꺾기 힘들다는 걸 안다.

운전자 관리·단속 강화… 어린이 사고 등 감소대책 추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의식은 이처럼 최근 들어서야 사고의 심각성을 서서히 깨닫는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2010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79명(전체 사망자 수는 5천8백3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관련 자료가 없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27위 수준이다. 2008년 사망자 수 2.86명(전체 5천8백70명)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전체 사망자 수가 32명 줄어드는 데 그쳐 5백70명을 줄이기로 한 당초의 목표는 무색하게 됐다.

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21만5천8백22건에서 23만1천9백90건으로 오히려 7.5퍼센트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보다 21.5퍼센트 증가한 1백63명이 과속 사고로 사망했다. 노인 교통사고 역시 심각한 수준.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천8백26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31.3퍼센트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5.1퍼센트(91명) 증가한 수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등의 안전대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 관리·단속을 더욱 강화했고, 특히 어린이 등 '약자' 사고 감소 대책을 적극 실천에 옮겼다.

또 11개 시도, 20개 지역에서 보행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벌였으며, 보행자 중심 어린이 보호구역을 1천1백19개 신설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선 어린이용 안전의자(카시트) 보급사업도 펼쳤다.

사고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 및 화물 운수업체 운전자의 과속·난폭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0事 2020 프로젝트' 등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1000事 2020 프로젝트는 교통사고 상위 운수업체(버스, 택시, 화물) 1천 개사와 교통안전 취약지점 1천 개소를 집중 관리해 사망자를 20퍼센트 이상 줄이자는 대책. 지난해 1년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해당 사망자 수가 42.9퍼센트(3백41명→1백56명) 줄어들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12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1.3명까지 낮추기로 하고, 우선 올해는 2.4명 미만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련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인 ▲보행자 및 대중교통 안전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및 인프라 구축 ▲교통안전 부문 기초질서 확립 ▲지자체 교통안전 활동 강화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벌써 효과가 나타났다. 경찰청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상습 교차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사고발생 건수가 34.9퍼센트 줄어들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캠페인 추진

이들 목표에 따른 세부 과제를 살펴보자. 우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근 3년간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보행우선구역에선 보행자보다 차량운전자에게 더 큰 의무가 부과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사업용 차량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활용, 과속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분석해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교통안전법'이 개정됐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 중 사망이나 8주 이상 사고자는 6월 30일부터 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했다. 3회 이상 음주



동아DB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등의 안전대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운전자 관리·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음주량에 따른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딸 때는 차량에 시동잠금장치(호흡측정을 통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 것)를 설치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동아DB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면허취득 기간을 더 연장하고, 음주량에 따른 처벌 기준도 세분화된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사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천8백38명 중 3백33명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생활도로에서 속도 편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차량 운행속도 저감정책(일명 ZONE 30)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전거 소통이 많은 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운전 자격 시험제를 추진한다. 자격시험을 치를 땐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도 받게 되며, 합격하면 '녹색안전운전 자격증'을 수여한다.

국토해양부도 지난 2월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자전거 사망 사고의 80퍼센트 이상이 머리 손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만 13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알리미' 구간을 현행 20개소에서 1백10개소로 늘리고, 휴게소 사이가 먼 구간에는 간이휴게소와 비상주차대를 늘려 설치하기로 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도 대상 도로를 고속국도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대해 의무화할 방침. 이렇게 대상 도로만 늘려도 연간 5백7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 국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08년 현재 3.95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의 착용률은 80~89퍼센트에 이른다.

항공기 자율안전감독제도 등 시범 시행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부터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전 좌석 안전벨트 매기 범국민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안전띠 착용률은 2001~2002년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평균 73.1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실정.

교통안전공단 이성신 안전기획처장은 "월드컵 캠페인 등으로 안전띠 착용률이 98퍼센트까지 달했던 2001~2002년엔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각각 21, 11퍼센트씩 감소했다"며 이 운동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초등학생은 연간 1인당 4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안전 전문교사의 실습교육도 강화한다. 6세 미만 유아가 있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가 보급된다.

또한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하는 실버마크의 인지도를 높이고,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7년→5년)할 계획이다.

철도·항공·선박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철도사고는 지난해 2백61건이 발생해 2008년보다 7.4퍼센트(2백82건)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1백58명으로 전년보다 5명이 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큰 열차 충돌, 탈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고, 대부분 선로 무단통행, 승강장 사고, 선로상 자살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운전 관련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철도 안전시설 정비 확충, 철도 차량의 안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47개 역사에 설치하고, 선로변에는 25개의

동아DB



해상 물동량 증가 등으로 해상사고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안 해역 조업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경부선(풍세, 청당) 등 11개소에 철도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노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KTX-2 1백30량과 전기동차 1백20량을 새로 도입하며, 서울메트로도 노후 전동차 2백80량(2호선 10량, 3호선 2백70량)을 교체할 예정이다.

항공기 사고는 지난 10년간 43건 발생했다. 회전익 항공기(21건), 기타 소형항공기(16건), 운송용 항공기(6건) 순. 국적 정기항공사는 10년 연속 무사망사고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종사 과실이 73.5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정부는 조종사, 정비사의 과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예방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우선 항공사에 대해선 지난 3월부터 회사별 운항 특성 및 안전 수준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안전감독제도'를 도입해 시범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 항공사들의 안전관리도 엄격해진다. 취항 전 안전성 검증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 기준을 통과한 항공사만 취항을 허가한다. 취항한 후에도 항공사별 안전 수준에 따라 점검 방식을 차등 적용해 취약 항공사를 선별, 해당 항공사에 대해선 매월 1회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항공기의 성능과 고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알려주는 '항공기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

>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초등학생은 연간 1인당 4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안전 전문교사의 실습교육도 강화한다. 6세 미만 유아가 있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가 보급된다."**

(HUMS)'을 2013년까지 58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계획도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엔진은 물론 동체, 주 날개, 꼬리 등 기체의 여러 부위에 대한 강도, 진동, 압력 변화를 모니터해 고장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바로 조종사에게 알려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해양 교통사고는 지난해 7백23건이 발생해 1백7명이 사망(실종 포함)했다. 해상 물동량 증가 등으로 사고 위험성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 정부는 사고 발생률이 특히 높은 연안 해역 조업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 기상 악화 시 어선 대피 지도, 검사 미필어선 출입항 통제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어선 통신망(SSB)을 설치해 어선에 대해서도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동아DB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에서 분리 운영되던 재난안전 관련 상황실이 중앙재난위기상황실로 통합되면서 홍수나 화재 같은 국가적 재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수재로 물에 잠긴 경기도 고양시 일대.

안전은 '문화'… 안전 불감증은 가라!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등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가동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으로 분리 운영되던 재난안전 관련 상황실이 중앙재난위기상황실로 통합돼 가동되고 있다.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해 신속한 범(汎)정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선진적인 위기대응 관리 시스템이다.



2층 높이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면에 각종 영상 정보들이 가득하다. 기상청의 기상정보, 주요 댐 수위와 방류·강우량 등 홍수통제소의 각종 수치들, 지진 발생지와 피해를 예측하는 지진대응 시스템, 산불감시 시스템과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CCTV, 4대강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50인치 데이터 손실방지(DLP) 멀티큐브를 4단 6열로 채워 만든 거대한 화면에 번갈아 뜨는 영상들은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화면 앞에서는 상황실 요원들이 각자 맡은 정보를 점검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층에 있는 첨단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이다.

>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적, 인적, 사회적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재난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 개소식을 가진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행정안전부의 위기관리상황실,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실과 소방상황실을 통합한 곳이다.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적, 인적, 사회적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재난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 노릇을 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소식에서 "국민의 재난안전과 국가의 비상대비 상황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위기관리가 중시되는 현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층으로 된 정부 전시관에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은 7백14제곱미터의 직사각형 공간이다. DLP 멀티큐브 영상이 있는 곳이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는 재난상황실이고, 이어 행정안전부의 위기관리상황실, 소방방재청의 소방상황실이 자리 잡고 있다.

재난상황실 20명, 위기관리상황실 15명, 소방상황실 11명 등 46명의 상황실 요원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을 지킨다. 여름과 겨울의 재해대책 기간에는 여기에 4~6명이 보강될 예정.

중앙재난상황실 개소… 재난 상황 실시간 관리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의 윤용선 재난상황실장은 "최대 24개의 영상 정보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DLP 멀티큐브 영상을 비롯해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의 감시 및 분석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인적 재난, 에너지·통신·금융·의료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 모두 이곳에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민관군, 중앙과 지방으로 연계된 범정부적 재난위기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난발생 상황을 초동단계부터 실시간으로 관리해나가는 포괄적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상황관리 시스템 통합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통합상황실 구축과 함께 추진 중이던 국가재난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 집행계획 중에서는 특히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이 주목된다. 이는 대형 화재, 폭발, 붕괴 등 후진적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위험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동아DB

정부는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등 모든 재난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은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

재난관리를 통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선진국 수준의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49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된다. 2차 기본계획은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은 안전 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1차 계획 때 미흡했던 안전관리와 전염병 대책을 추가했다.

선진국 수준 국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안전문화 정착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보장 ▲재해로부터 기업 안전 확보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운영 등 5대 목표와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올해 추진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 집행계획 중에서는 특히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이 주목된다. 이는 대형 화재, 폭발, 붕괴 등 후진적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위험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문.

정부는 국민의 막연한 안도감, 이에 따른 안전 불감증도 안전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 3월 안전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생활, 교통, 산업, 시설, 범죄, 식품, 사이버 안전 등 부문별 안전문화 활동 통합 조정 및 방향 제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관련 활동 지원 육성 및 평가 ▲안전문화 우수 민간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정부 파트너로서의 선진국형 비영리조직(NPO·Non-Profit Organization) 육성 등에 나서게 된다.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난의 예방이란 측면에서는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을 통한 민간 자율의 감시기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5월 25일 열린 제17회 '방재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폭우로 침수 위기에 놓인 마을 주민들을 긴급히 대피시켜 목



조영철 기자

전국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중앙재난위기상황실.

숨을 구해낸 충남 논산시 새마을지도자 이두한(53) 씨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논산시 가야곡면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80대 노인 4명을 직접 대피시키는 등 58가구 1백43명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냈다.

이처럼 재난 예방에서 민간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6월 11일 서울, 인천, 경기도 등에서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활동 등을 펼칠 모니터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정책평가 모니터위원은 재난안전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경력이 있는 주부들로 구성돼 올 한 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민간 자율 감시기능 강화

행정안전부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2백32개 시군구에서 6천2백99명(올 3월 말 현재)의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올 들어 생활안전, 교통안전, 환경, 화재 등 4백59건을 제보했는데, 이 가운데 3백38건이 처리됐고 1백16건은 처리 중이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서울에서는 서래근린공원 주변의 미끄러운 보도블록이 교체됐고, 부산에서는 폐가(廢家)의 담이 무너지는 사고를 미리 막았으며, 강원도에서는 스릅재 터널 내부의 파손된 천장이 긴급하게 보수되는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합동안전점검단,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대비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재래시장, 지하상가, 영세 청소년수련시설 등 취약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점, 학원, 고시원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후진적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12월 2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관계 부처 합동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근거로 올 2월부터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에 만들어졌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주요 업무는 크게 ▲주요 분야별 현장 점검, 개선과 안전대책 추진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이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하며 무엇보다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추진해 안전취약시설·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점검 결과 조치와 사후 관리 등을 연중 지속한다.

또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추진상황 점검회의(국무차장 주재)를 매월 한 차례 정례화하며, 대규모 점검이 필요할 때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합동 점검에는 전기, 가스, 시설 관련 전문기관 및 방재청의 중앙안전점검단(민간전문가)을 활용한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시설 낙후 등으로 잦은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과 지역(재래시장, 지하상가, 영세 청소년수련시설 등) ▲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유동인구가 많아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 ▲시기별로 많은 이용객이 몰려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과 행사(물놀이시설, 스키장, 대규모 지역축제 등) 등이다.

'빨리빨리' 말고 '조심조심'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

**하루 6명 사망, 매일 2백68명 부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사상자 수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지만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팀이 그리스에 통쾌한 첫 승을 거둔 이후 더욱 뜨거워진 길거리 응원 열기와 더불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각종 음료수다. 요즘 한국코카콜라 전국 28개 물류센터의 서비스직 사원들은 음료수 판매고를 높여준 대표팀의 승리에도 신이 나지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배송용 조끼 덕분에 발걸음이 더욱 가뿐하다.

음료 캔과 페트병을 배달하는 이 회사 서비스직 사원의 절반이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어깨끈과 등판의 길이, 재질 등을 개량한 특수 배송조끼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직원들은 업무환경 특성에 따라 배송용 카트를 사용한다.

한국코카콜라는 또 지난 5월 31일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한방병원인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맞춤체조'를 전수받았다. 자생한방병원의 맞춤체조 개발팀은 사무직 근로자용과 서비스직 사원들을 위한 두 가지 코스의 체조를 개발했다.

동아DB



한국코카콜라는 배송용 조끼와 맞춤체조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으로 서비스업종 산업재해 줄이기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코카콜라는 전국 3개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배송조끼 개선과 무재해 포상제도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라 2008년 25명이던 산업재해자 수를 2009년 19명으로 낮췄으며 올 들어선 5월까지 2명으로 줄였다.

서비스 업종인 한국코카콜라가 산업재해 감소 노력을 펼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의외로 많은 산업재해가 서비스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코카콜라 안전보건팀 김동하 부장은 "흔히 산업재해라 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만 일어나고 서비스 업종에선 없을 줄 알지만 실제로 많은 산업재해가 서비스업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장비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1만명당 1명… 산업재해율 높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자 10명 중 3명이 서비스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경제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수의 59퍼센트, 전체 근로자 수의 42퍼센트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 자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산업재해 통계는 각 나라마다 산출 기준이 달라 절대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의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영국의 14배, 일본과 독일의 4배, 미국의 2배다.

2009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9만7천8백21명이며 이 중 2천1백81명이 사망했다. 이는 매일 6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2백68명이 부상을 입는다는 얘기.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과 가족의 행복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9년 5천만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60만일의 약 83배에 달했다.



동아DB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산업재해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퀴즈쇼.

산업재해 발생 형태도 감김, 끼임(협착), 넘어짐(전도), 떨어짐(추락) 등 '재래형 재해'가 전체 재해의 50퍼센트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05~2008년) 산업현장에서 감김, 끼임, 넘어짐, 떨어짐으로 12만9천8백11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1천9백10명이 사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10년간 산업재해율이 0.7퍼센트대에서 더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터의 안전 중요… 안전은 '문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은 "산업구조가 복잡화, 고도화, 대형화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고 안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산업재해율의 감소 추세는 답보상태"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대로 정착돼 안전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산업재해도 꿈틀대고 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자 수는 지난 1~4월 2만7천63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4퍼센트 증가해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1.2퍼센트)의 6배를 웃돈다.

이에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백일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산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점검, 교육과 재해예방 독려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한국 (2009년)	미국 (2007년)	일본 (2007년)	독일 (2007년)	영국 (2007~2008년)
1.01	0.48	0.26	0.22	0.07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5일 산업재해의 날을 맞아 일터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내 최대의 안전보건 축제인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7월 5일부터 5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하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는 총 26개 주제의 세미나와 토론회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마련되어 안전보건에 대한 활발한 정보 교류가 기대된다. 공단은 올해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전 글짓기 대회, 손수제작물(UCC) 공모, 안전동요제, 안전문화 페스티벌, 강조주간 특집 1:100 퀴즈 방송 등의 다양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강조주간을 맞아 산업안전보건의 대표 슬로건을 '조심조심 코리아'로 정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모토인 '빨리빨리' 문화를 이제 안전 분야에서만큼은 '조심조심'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el 032-510-0500 kosha.or.kr



온라인 세상도 'safe @ korea'

그린i-Net2.0 등 사이버 안전대책 마련

인터넷의 위해성이 심각하다고 인터넷을 끊고 살 수는 없는 일. 정부는 사이버 세상의 갖가지 위험요소를 손쉽게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료 보급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경찰청은 지난 4, 5월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 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국내 1백2개 사이트에서 3천8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중복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인터넷 사용자(약 3천6백만명) 중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판매되어 스팸문자 발송 등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중국 해커에게 구입한 개인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등 총 9백89명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거됐다.

#2 김혜원(38·주부) 씨는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울 때마다 불안하다. 중학생인 아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것 같기 때문이다. 김 씨의 걱정이 기우만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오히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노출되기 쉽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말 전국 남녀 중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약 9명이 음란 선정물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했다고 응답했다.

사이버 공간의 위험이 실제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끊고 살 수는 없는 일. 정부와 관련 기관이 마련한 각종 사이버 안전대책을 숙지한다면 안심하고 사이버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위에 소개한 피해 사례의 예방책은 알고 보면 참 쉽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인증번호)을 사용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www.greeninet or.kr)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지난해 4월에 그린i-Net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올 6월 중



일러스트 · 남동윤

순 현재까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건수는 1백 40만 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과 연계해 톡톡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대책은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공간을 안심하고 사용하게 해주는 똑똑한 도우미다.

사이버 안전대책은 ▲사이버 테러(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범죄(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의 두 가지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사전 예방책과 사후 피해사례 신고체제로 나뉜다(표 참조).

먼저 청소년의 사이버 안전이 염려된다면 그린i-Net2.0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누구나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퇴폐·음란 내용이 담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게임, 판매광고 등을 차단하는 필터링 효과가 있다.

최근 이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를 새로 장착했다. 마치 방송 프로그램에 시청 등급을 표시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마다 0~4등급의 유해등급을 매겨 접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장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유해 사이트 50만 건과 국내 전체 음란 성인물 사이트들의 등급을 매겼다.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허용 등급을 세팅해둘 경우 등급 밖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페이지는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으로 차단돼 열어볼 수 없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이용건전화추진단 정재하 부단장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인터넷 사이트에도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개인정보 지키기 등 캠페인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 캠페인도 활발하다.

법무부가 다음, 네이트, 네이버 등 7개 포털사이트와 함께 벌이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 'Let's Clean Up!'은 음악, 사진, 영화 등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례별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알리고,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자는 '나의 개인정보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4월 말부터 스마트폰에 '법아, 놀자'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속에 생활법률, 저작권 퀴즈 등 사이버 안전 관련 콘텐츠를 재치 있게 담았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자가진단' 서비스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관리할 때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진단해준다.

한편 인터넷을 사용하다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범죄를 당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마련한 신고센터를 찾으면 된다. G

글 · 최은숙 기자

사이버 범죄 예방과 신고는 이곳에서!

	내용	웹사이트 또는 전화번호
예방	아이핀 전환 캠페인	www.i-pin.kr
	인터넷 내용등급 안내	www.safenet.ne.kr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www.greeninet.or.kr
	저작권 보호 캠페인	www.portalcopyright.com
	스마트폰 10대 안전수칙	www.kcc.go.kr
	개인정보 보호 자가진단	www.privacycheck.or.kr
신고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	www.singo.or.kr 또는 국번 없이 1377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전자민원창구	i-minwon.spo.go.kr

"세계 최고 안전도시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 우수 도시를 가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한국형 안전도시(Safe City)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전국 9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안전도시 사업 구역 중 우수 사례들을 소개한다.

도시는 국민 대다수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 정책과 그에 따른 사업이 도시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치중되고 상대적으로 안전을 등한시하면서 안전사고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 예방 학술대회는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을 선포했다.

이는 인간이 누려야 할 안전 권리의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도시(Safe City)'의 개념을 정의했다. 주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사업에 협력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가 그것이다.

특히 사고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안전도시의 개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안전도시 사업을 실시할 9곳을 선정했다. 이들 중 '어린이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경기 과천시, 최근 WHO로부터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된 충남 천안시,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를 꿈꾸는 대구시 동구 등 세 도시를 살펴봤다.



대구 동구청

2003년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대구시 동구는 안전테마파크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언제든 배울 수 있다.

경기 과천시
생활안전 정책 중점…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닿을까 말까 한데 만지면 안 되겠죠? 만지면 뜨거워서 크게 다쳐요. 엄마가 요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는 어린이 안전 뮤지컬 〈할까 말까〉가 공연됐다. 제1회 과천 어린이안전주간 잔치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공연장 옆에는 안전버스 체험교육, 보호장구 사용법 등 10개의 체험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직접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깨닫고 주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과천시는 체계적인 조직과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타트프롬 과천(Start from Gwacheon)'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전 파수꾼(Safety Guard)' 제도.

과천시는 동네 골목과 도심 외곽지역 감시를 경찰차 순찰에만 의지하고 있어 '1백 퍼센트 안전'을 장담하긴 어려운 형편. 이에 따라 2개 구역을 지정해 어린이들의 방과 후 시간대에 관내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전기동력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게 하는 안전 파수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
WHO 국제 안전도시 공인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9개 시범 안전도시 중에서도 충남 천안시는 WHO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아 안전의 이중벽을 둘렀다. 천안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16만명, 예산이 2.4배나 늘 정도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발도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범죄예방 없이 안전도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범죄로부터의 안전, 교통안전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상 셉티드(CPTED · 범죄예방설계) 도입,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첨단 방범장비 설치 등 7개 사업이 중점 추진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강조하는 '유 세이프 시티(U-Safe City)'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기존 '유시티(U-City : Ubiquitous city)'와 연계된 사업으로 도시의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유 세이프 시티가 조성되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고,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 등을 표시하는 '온라인 안전지도' 등이 구축된다.


과천시청

경기 과천시가 어린이안전주간 잔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천안시는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 등 치안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시책을 꾸준히 마련해오고 있다.

대구 동구
재난안전 관리 4년 연속 최우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대구시는 '안전대구'를 만들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해왔다. 그 가운데 동구는 대구시가 주관하는 재난안전 관리 평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뽑혀 안전 분야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선정 안전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동구는 그간 마련해온 안전도시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46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사진 전시회, 안전생활 어린이 일기 쓰기, 안전생활 수기 공모 등을 수시로 열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 또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보호구역 개선, 방범·산불·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 학교 주변과 재난위험지역·육교·야간산책길 등 주민생활 취약지점에 보안등 설치, 시민단체 안전네트워크 구축 등도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제표준 안전표지 23종 “Made in Korea”

현재 1백63종인 국제표준 그림표지(픽토그램) 가운데 우리나라가 디자인한 그림표지는 32종이다. 그림표지는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그 의미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기호의 일종. 국가, 언어, 문화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제표준 그림표지 중 병원, 호텔 등 공공 안내표지 79종 중 9종, 안전복·보안대 착용 등을 나타내는 안전표지 84종 중 23종이 우리나라가 디자인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 추가 제안한 소방서 등 10종의 그림표지는 국제표준안 심의 단계에 있다.

국제표준 그림표지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가 정한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려면 동서양 각 1개국 이상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그림표지 이해도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를 통해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소방서·온천 등 10종 그림표지 심의 단계

우리나라는 2006년과 2007년 국제표준 그림표지의 첫 결실을 봤다. 2004년 미국에서 열린 ISO 기술위원회 안전표지 전문가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작업장 및 공공장소를 나타내는 6종의 안전표지가 국제표준(ISO 7010) 안전표지로 등재된 것. 특히 ‘비상대피소’는 비상시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잘 연상시키고, ‘맹견주의’는 진돗개에 목걸이를 해 유럽 디자인보다 눈에 띈다는 점에서 채택됐다.

‘귀마개 착용’, ‘보안경 착용’ 안전표지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유럽이 사용해온 서양인 얼굴 형태의 안전표지가 동양인의 얼굴 형태가 담긴 우리나라 디자인으로 모두 교체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은 “문화와 국가를 반영하는 그림표지 중 우리나라 디자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수준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대한민국이 만든 그림표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안전표지
국제표준(ISO 7010)에 등재된 안전표지 84종 중 23종 채택



국제표준으로 신규 제안해 검토 중인 그림표지
지난해 7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ISO/TC 145 그림표지)에
신규 제안해 회원국 투표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승인 예정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공 안내표지
국제표준(ISO 7001)에 등재된 공공 안내표지 79종 중 9종 채택





대한민국 육군에서 꿈을
펼쳐라!
귀하의 능력을 인정하는 육군에서 꿈을 이루세요!
대한민국 육군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육군본부
www.goarmy.mil.kr(육군모집)
전국대표 : 1588-6953
NAVER 검색창에 육군모집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구 반포로)의 디지털 도서관 '디브러리' 열람실에서는 국내외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지식, 여기 다 있네

국립중앙도서관 120% 활용 가이드

도서관은 진화한다. 도서관이 주로 학생들의 '독서실'로 활용되던 것은 이제 옛날이야기다. 국내외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화 시대의 보고(寶庫)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알차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절판된 책, 그곳에 가면 있다

읽고 싶은 책이 절판되거나 품절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서울 서초구 반포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보자. 대한민국에서 출판된 모든 책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소유〉를 필두로 한 법정 스님의 책들은 수정 증보판을 포함해 국내에서 출판된 1백5종이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소장돼 있다.

어떻게 국내에서 출판된 거의 모든 책을 소장하고 있을까. 이는 '도서관법'에 근거한다. 1965년부터 시행된 '납본'이라는 제도가 있다. 국내에서 자료를 발행하거나 출판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이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받은 자료를 국가의 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후세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을 중심으로 수집한 자료는 2010년 6월 중순 현재 약 7백60만 권이다.

컴퓨터 500대… 디지털 도서관의 메카

디지털은 이미 도서관 깊숙이 들어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내 디지털 도서관(이하 '디브러리')에는 책이 아니라 5백 대가 넘는 퍼스널컴퓨터가 있다. 국내외 디지털 도서관, 공공 및 민간 지식정보기관과 원문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디브러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향후 세계 각국과의 협력에 따라 널리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디지털 도서관인 '유로피아나(Europeana)'와 유네스코를 비롯해 32개 협력기관이 참여한 '세계 디지털 도서관(World Digital Library·WDL)'이 문을 열었으며 아시아 한자문화권 국립도서관들도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중일 3국이 각자 구축한 원문 DB와 전자책을 통합 검색해 볼 수 있게 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은 2006년 도서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국가시책 수립' '도서관 서비스의 지침과 기준 제정'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작 및 배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장애인 코너를 운영하는 도서관은 1백27곳(19퍼센트)이며, 장애인 전용 자료실을 운영 중인 도서관은 50곳(7.5퍼센트)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37곳, 청각장애인도서관이 5곳 있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온라인 서비스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지 말고 사서에게 물어보시라.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사서에게 물어보세요(www.nl.go.kr/ask)' 코너는 온라인으로 이용자의 궁금증을 상세하게 해결해준다. 전국 도서관 단위의 소장 목록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www.nl.go.kr/kolis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에서 검색한 후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가까운 도서관을 찾으면 된다.

'책바다'로 집 근처 도서관에서도 이용

국립중앙도서관에 갈 수 없을 땐 어떻게 할까. 집 근처 공공도서관을 찾자. 보려는 책이 동네 도서관에 없을 땐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해 국립중앙도서관 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책바다'란 '책의 바다' 또는 '책을 받아본다'는 뜻으로 명명한 대출 서비스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08년부터 전국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시행하고 있다. 택배로 받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는 신청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다. 3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비용은 택배비 4천5백원.

농산어촌 도서관에 무료 원문 DB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39만 권 이상의 원문 DB를 농산어촌 작은 도서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엔 1만여 권의 어린이, 청소년용 자료가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약을 통해 초중고 교육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읍면 지역의 작은 도서관을 방문해 원문정보서비스 사이트(www.dlibrary.go.kr/small_lib)를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찾으려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www.libsta.go.kr/index.do)의 지도에서 지역을 클릭하거나 '도서관 검색' 메뉴에서 원하는 지역을 찾을 수 있다.

고문서 등 온·오프라인 전시도 풍성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귀중한 자료 전시도 볼 만하다. 지난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본관 5층 지도자료실 앞 로비에서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 전시를 연다. 1737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인 당빌(D'Anville)이 독도(우산도)를 조선 왕국 영토로 포함해 그린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 등 희귀 고지도 20점이 전시돼 있다.

또한 본관 6층 고전운영실에서는 6월 30일까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왕들이 직접 짓고 쓴 글과 글씨 24점을 볼 수 있는 고문헌 전시가 열리고 있다.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관. G

글 · 배영대(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문의 Tel 02-535-4142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조영철 기자



◀디브러리에는 멀티미디어 체험관, 디지털 신문대, 다국어 정보실, 디지털 아트 전시실 등이 있다. ▶7월 말까지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 전시가 열린다.

한국의 美
전통공예의 오늘 그리고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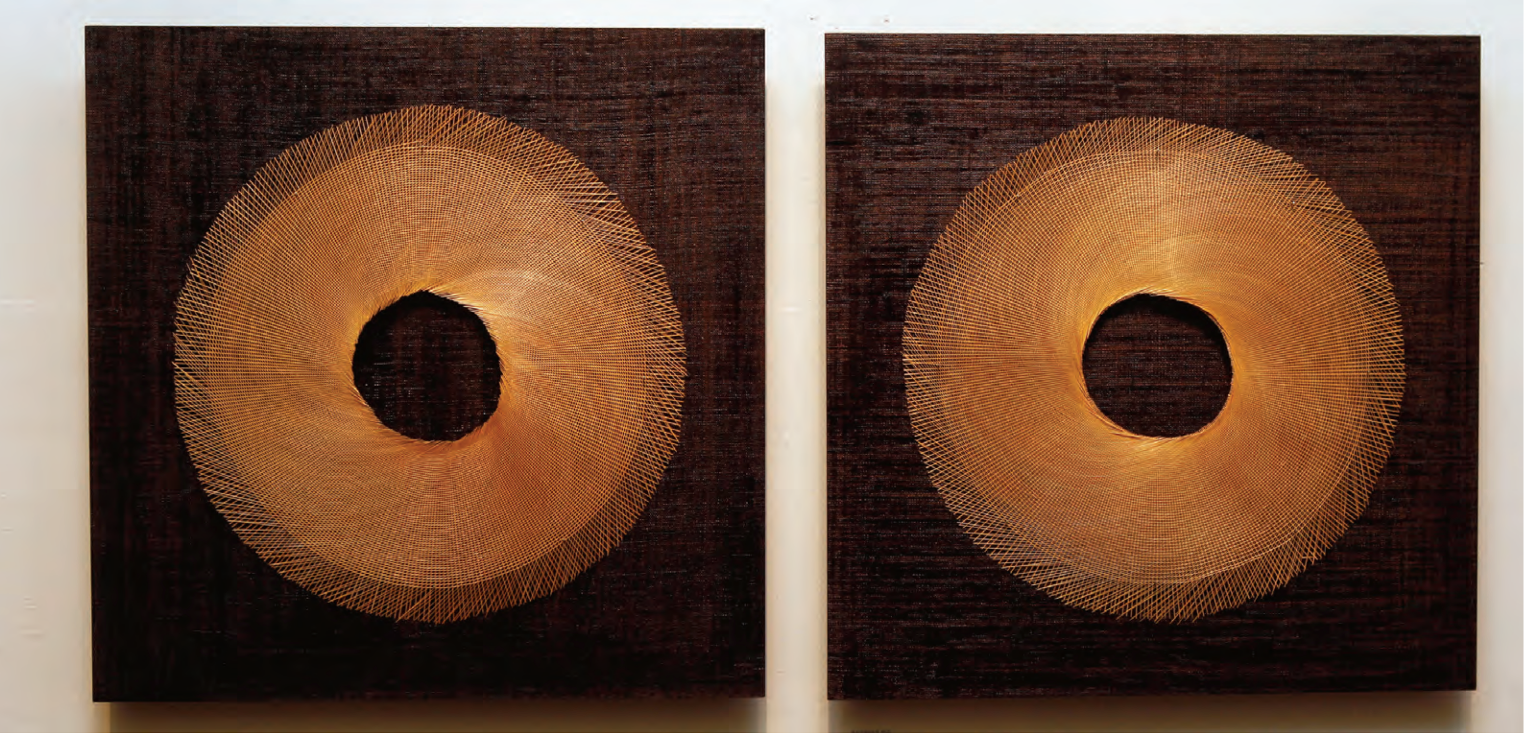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98인의 '한국전통공예 미래전'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함. 장인(匠人)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내와 아들,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본다. 장인 앞에서 수천, 수만 번 연습했건만 금박을 붙였다 떼는 과정은 늘 가슴 떨린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씩 금박을 붙여나가자 어느새 빨간 한복 천 아래로 용맹스럽고 화려한 용이 꿈틀댄다. 그 옆으로는 여러 마리의 용들이 태양을 향해 돌진하고, 소박하고 수수한 꽃들은 따스한 봄날을 그려낸다.

직물 위에 얇은 금박으로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금박장(金箔匠). 중요무형문화재 119호 금박장 김덕환 씨 가족 모두의 직업이자 삶이다. 그동안 김 씨 같은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는 많았지만,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를 주인공으로 한 자리는 드물었다.

문화재청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이들의 데뷔 무대 격인 제1회 '한국전통공예 미래전'을 열었다. 우리의 진정한 명품인 전통공예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리고 전통공예의 맥을 잇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전시는 나전장(螺鈿匠), 궁시장(弓矢匠) 등 34개 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98명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갓 만드는 장인 양선미 씨가 만든 갓 테두리. 삼베를 덧대 옻칠한 액자에 오브제로 붙여 미술작품으로 변신했다.





1



2



3

나무틀에 삼베를 덧대 옻칠을 한 액자가 전통공예 작품들을 세련되게 부각시킨다. 전통 활과 노리개, 장도 등을 액자 안에 넣어 현대적인 미술품으로 재탄생시켰고, 그중 갓일(갓 만드는 장인) 양선미 씨의 작품은 짙은 옻칠 액자 위에 양태(갓 테두리)가 빛을 발해 신비함을 자아낸다.

이번 전시는 가족 작품이 일렬로 전시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가족이 기술을 대물림하기 때문. 최연소 장도장(粧刀匠) 작가인 고교 3학년생 한준혁 군은 아버지 한상봉 씨에게서 기술을 물려받아 부자(父子)의 작품이 나란히 걸렸다.

전시장에는 한산모시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만든 드레스와 코사지, 전통 나전기법을 이용한 자개 가구, 모던하고 강렬한 색감으로 짜낸 완초장(莞草匠)의 보석함 등 소장하고 싶은 전통공예품들로 가득하다.

앞으로 이 전시는 우리나라 전통공예품의 밝은 미래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열릴 계획이다. 6월 30일까지(오전 10시 반~오후 8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명품관 애비뉴엘 9층.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Tel **02-398-7929**



4

1 빨강, 노랑 등 원색의 왕골로 짜서 만든 구절 보석함이 감각적이다. 완초장 장금숙 씨의 작품.
2 금박의 용들이 비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119호 김덕환 씨의 큰아들 김기호 씨 작품.
3 이번 전시회 최연소 작가인 한준혁 군의 장도장 작품.
4 한산모시로 만든 전통 맵시의 드레스.
5 목조각장 김종흥 씨는 나뭇가지에서 쉬는 새들을 형상화한 솟대를 만들었다.



5

"3代가 모두 현역… 가문의 영광이죠"

2010 병역명문가 192가문 선정·시상

6·25전쟁 때 입대한 할아버지는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 뜻을 이어받은 아들과 손자들은 질병으로 현역병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병을 치료한 후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2010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가족들의 남다른 나라사랑을 소개한다.




◀김천수 씨 가족은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김종갑 할아버지(앉은 이)를 비롯해 집안의 남자 13명이 모두 현역병으로 복무해 올해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11명이 모두 현역병으로 복무한 강경순 씨 가족은 4형제가 같은 시기에 군대생활을 할 때 찍은 가족사진을 가문의 보물로 여긴다.

대상 | 3대 13명 김천수 씨 가족
대체복무 가능한데도 현역 복무

2010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인 대상을 받은 김천수 씨 가족은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김종갑(83) 할아버지부터 손자들까지 집안의 남자 13명이 모두 현역병으로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쳤다.

김 할아버지는 슬하에 5남 3녀를 뒀으나 전쟁 중 딸 셋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었다. 전쟁으로 자식을 셋이나 잃었으니, 남은 자식들은 위험한 곳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김 씨의 아들 다섯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다.

2대인 장남 김천수(58) 씨의 큰아들 영욱 씨는 결혼을 일찍 해 입대할 당시 아내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다. 영욱 씨는 내심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했지만 '남자라면 당연히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족들을 뒤로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영욱 씨는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해보니 군대생활을 겪은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당시의 결정이 옳았다고 회고했다.

2대 차남 김성수 씨의 큰아들 영우 씨 역시 서울대 박사과정 중에 있어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근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영우 씨도 현역병을 선택해 집안 남자들의 전통을 이어갔다.

2대 3남 김동수 씨의 큰아들 영범 씨는 심한 아토피로 현역병 입대가 어려웠지만, 병원치료와 약물치료를 계속한 끝에 어렵사리 3급 현역병 판정을 받아 입대했다. 영범 씨는 군부대의 깨끗한 환경과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아토피도 치료하고 '우수 전우조'로 선발되는 등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2대 장남이자 가문의 대표인 김천수 씨는 "가문의 남자들 모두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친 것만으로 고마운데 상까지 받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금상 | 3대 11명 강경순 씨 가족
군에서 배운 기술로 평생 진로 결정

금상(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강경순(64) 씨 가족은 1대 고 강선구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들까지 가문의 남자 11명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강 할아버지는 6·25전쟁 중 1·4후퇴 때인 1951년 입대해 4년간 군 복무를 했다.

강 할아버지 슬하의 4형제는 모두 같은 시기에 군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군에 간 4형제 중 3형제가 동시에 휴가를 나와 촬영한 가족사진은 가족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2대 장남 강경순 씨는 공군 소위로 임관해 22년간 군 생활을 했다. 강 씨는 "백령도에서 근무할 때 결혼식을 했는데, 기상악화로 배가 뜨지 못해 신랑인 내가 참석을 못 할 뻔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옛일을 회상했다.

2대 차남 강득순 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병으로 배치받아 군에서 운전을 배웠다. 이를 계기로 강 씨는 전역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했고, 이후엔 택시운전을 하는 등 군에서 배운 운전기술이 평생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강 씨의 큰아들 인홍 씨는 보건학과 재학 중 입대해 의무병으로 복무했다. 군에서 쌓은 경력은 전역 후에도 도움이 돼 지금 병원에서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있다.

강 씨 가족들은 이처럼 군에서 복무한 주특기가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강경순 씨는 "군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상까지 주니 고마울 뿐"이라며 "고향인 충남 한산에 온 가족이 모여 큰 잔치를 벌일 예정"이라고 기뻐했다.

금상 | 3대 10명 문병회 씨 가족
병역기피 젊은이들에게 본보기 됐으면

문병회(59) 씨 가족도 금상(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대 고 문희택 할아버지, 2대 아들 5형제, 3대 손자 4명 등 가문의 남자 10명 모두가 현역병 복무를 마쳤다.

문 할아버지는 6·25전쟁 때 장단지구 전투에서 어깨에 총탄을 맞은 국가유공자다. 이때의 부상 후유증으로 44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다. 문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뜬 뒤 김순아(84) 할머니는 다섯 아들과 1백7세까지 장수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가난한 가정을 일으켜 주위의 칭송이 자자했다.

문 할아버지 슬하의 5형제도 모두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특히 2대 장남 문병현 씨는 전쟁 때 입은 상처로 경제력을 잃은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면서 1965년 육군 제 27사단 보급병으로 복무했다. 복무기간 중 단 한 건의 보급품 도난이나 유실 등 사고도 없어 매번 '보급품 관리 최우수 중대'의 영예를 차지한 것을 지금도 자랑으로 생각한다.

가문의 대표인 2대 3남 문병회 씨는 "현역병은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문 남자들 모두 현역병으로 무사히 복무했다는 게 자랑스럽고, 병역을 기피하려는 일부 젊은층에게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6·25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3백98가문의 신청을 접수해 역대 최다인 1백92가문을 선정했다.

병역명문가는 대학교수, 언론인 등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표창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병역이행자 가족 수, 병 복무자 수, 전사 등 가족의 병역이행 내용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G

글 · 김광숙 객원기자

병무청 Tel 042-481-2706 www.mma.go.kr



문병회 씨 가족은 6·25전쟁 국가유공자인 고 문희택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가문의 남자 10명이 모두 현역병으로 국방의무를 마쳤다.

이웃집 마실 가듯 설렁설렁 고갯마루선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1987년에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백산은 지리산을 닮았다. 최고봉인 비로봉(1천4백39미터)을 중심으로 국망봉(1천4백21미터), 제2연화봉(1천3백57미터), 도솔봉(1천3백14미터), 신선봉(1천3백89미터) 등의 고봉들로 이어진 산세가 듬직하고 자락이 넉넉하다. 금강산이나 설악산처럼 화려한 기암절벽은 없지만,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지리산처럼 언제나 푸근한 느낌을 준다.

지리산에 둘레길이 있다면 소백산에는 자락길이 있다. 총 3백여 킬로미터의 지리산 둘레를 완벽하게 일주하는 지리산 둘레길(지리산 숲길)과 마찬가지로, 소백산 자락길도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에 걸쳐 있는 소백산 자락을 한 바퀴 도는 순환형 도보코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주 소수서원에서 죽령까지의 3개 코스 40.7킬로미터 구간만 개설돼 있다. 올해에는 단양 땅의 소백산 자락을 에돌아가는 4개 코스, 59킬로미터 구간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한다.

소백산 자락길의 영주시 구간 가운데 가장 운치 있고 걷기 편한 길은 죽령을 넘는 제3구간이다. 11.4킬로미터 길이의 제3구간은 3개의 소구간으로 나뉜다.

소백산역에서 죽령주막까지의 죽령옛길(3.8킬로미터), 죽령주막에서 죽령터널 입구까지의 용부원길(3.9킬로미터), 죽령터널 입구에서 장림리까지의 장림길(4.7킬로미터)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명승 제30호로 지정된 죽령옛길은 가장 인기 있는 소구간이다.

겉보기와 달리 편안하고 완만한 죽령옛길

죽령옛길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고갯길이다. 삼국시대에 죽령 일대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서로 치열하게 영토 싸움을 벌이던 각축장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다. 장수왕(470년) 때는 고구려 땅이었다가 진흥왕(551년) 때에는 신라가 차지



전통문화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선비촌의 별밤.



노송들이 그늘막 노릇을 하는 소수서원 입구.

했다. 죽령도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개통됐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아달라왕 5년(158년)에 처음으로 죽령을 열었다고 한다. 자그마치 1천8백여 년의 내력을 간직한 셈. 죽령을 처음 개척한 죽죽(竹竹)이라는 사람은 너무 지쳐서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한다. 대나무 하나 없는 고개가 죽령(竹嶺)이라 불리게 된 것도 순전히 죽죽 때문이다.

죽령옛길은 먼발치서 바라볼 때와 실제로 걸어볼 때의 느낌이 사뭇 다르다. 풍기에서 아스라이 보이는 죽령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험산준령 같다. 하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고갯길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편안하고 경사가 완만하다. 숲은 낙엽송 우거진 인공림과 참나무 빼곡한 천연림이 혼재한다. 하늘을 찌를 듯이 쭉쭉 뻗은 낙엽송이 보기에도 시원스럽다.

내력 깊은 죽령옛길에는 옛이야기도 많다. 퇴계 이황과 온계 이해 형제의 이야기가 무엇보다 흥미롭다. 퇴계 선생이 풍기군수로 있을 무렵에 넷째 형인 온계는 충청감사였다고 한다. 온계가 고향인 예안을 다녀가는 길에 풍기 땅을 지날 때마다 퇴계는 죽령까지 배웅했다. 퇴계와 온계는 '잔운대', '촉령대'라 이름 붙인 바위에 앉아서 형제간의 남다른 우애와 석별의 정을 나눴다고 한다.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 오대산 계곡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피부병을 고친 세조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종을 찾아서 상원사로 옮기라는 명을 내렸다. 그래서 찾아낸 종이 안동 관아의 누문(樓門)에 달려 있던 동종이었다.

그런데 상원사로 옮겨지던 동종이 죽령에 이르자 갑자기 꼼짝하지 않았다. "제 고향이 몹시 그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종의 일부를 떼어내 안동 땅에 묻었더니 그때서야 다시 움직였다고 한다.

죽령 고갯마루 '주막' 옛길 정취 살려

죽령옛길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과 눈길을 붙잡을 만큼 빼어난 절경은 없다. 또한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할 정도로 험준한 구간도 없다. 영주 사람들은 이웃에 마실 가듯 가볍게 죽령옛길을 오르내리곤 한다. 수시로 오르내려도 날마다 먹는 밥처럼 물리지 않고, 듬직한 소백산처럼 푸근한 느낌을 주는 길이다. 그래서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 넘어가는 구렁이처럼 슬그머니 고갯마루에 올라서게 된다.

해발 6백89미터의 죽령 고갯마루에는 지금도 주막이 하나 있다. 고소한 도토리묵을 안주 삼아 곁들이는 막걸리 한 잔이 죽령옛길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키 작은 장승 몇 기가 길목을 지켜선 죽령옛길의 초입.

죽령옛길을 걸은 뒤에 여유가 있다면 순흥에도 들러보기를 권한다. 소백산 자락길의 제1구간이 두루 거쳐가는 순흥은 오늘날 작은 면 소재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상도 북부지역에서는 안동 버금갈 만큼 큰 고을이었다.

지금도 순흥에는 옛 영화를 말해주는 유적이 여럿 남아 있다. 맨 먼저 들러볼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賜額·임금이 서원 등에 이름을 지어 그것을 새긴 편액을 내림)서원이자 사립교육기관인 소수서원(054-639-6693)이다. 1543년(조선 중종 37)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 이 서원의 시초다.

소수서원·선비촌 들러 옛 정취 느껴볼 만

1550년(명종 5)에 풍기군수 이황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서원 입구에는 아름드리 솔숲이 있다. 세한삼우 중 하나인 소나무의 청징한 자태와 늠름한 기품은 언제나 맑고 상쾌하다. 더욱이 이곳의 소나무 고목들은 적당히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어서 오히려 더 멋스럽다.

소수서원과 이웃한 선비촌(054-638-6444)은 5만7천여 제곱미터(1만7천여 평)의 부지에 해우당, 두암고택 등 영주 일대의 고가 12채를 원형대로 재현해놓은 전통마을이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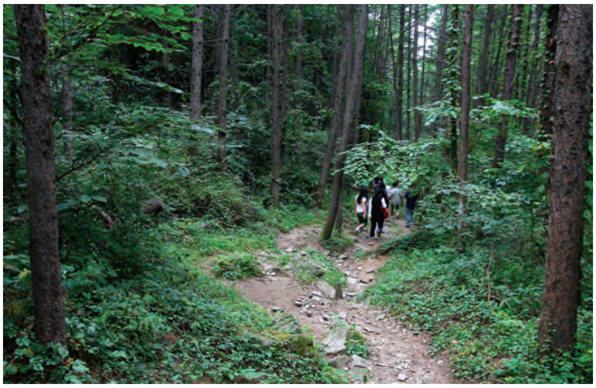
“ 달밭길은 계류가 바로 옆에 흘러 물가가 그리운 여름철이나 낙엽 밟는 소리가 듣기 좋은 만추에 걷기 좋다. 물소리, 바람소리를 길동무 삼아 인적 뜸한 숲길을 두어 시간만 걸어도 가슴속의 시름과 한숨이 모두 사라지는 듯하다. ”

와집과 초가뿐 아니라 정자, 물레방아 등도 있고 부속건물이 모두 수십여 채에 이른다. 마치 조선시대의 어느 양반마을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선비촌은 낮에는 전통문화 학습장, 밤에는 전통 민박집으로 활용된다.

소수서원과 선비촌이 위치한 순흥면 내죽리에는 금성대군과 관련된 유적이 몇 곳 있다. 금성대군은 조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다. 평소 형인 수양대군을 경계한 그는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왕위를 빼앗은 뒤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순흥으로 유배됐다.

유배지인 순흥에서 금성대군은 순흥부사 이보흠과 뜻을 합쳐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다. 그러나 거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관노의 밀고로 관군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결국





▲▲ 조선시대 어느 양반고을에 들어선 느낌을 주는 선비촌.
▲ 죽령옛길 숲속을 걷는 여행자들.

단종복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순흥 일대는 순식간에 모두 불타고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당시 죽음을 당한 금성대군과 이보흠 등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 금성단이다. 그리고 작은 우물을 한복판에 두고 탱자나무 울타리가 둥그렇게 둘러쳐진 '금성대군위리안치지'는 사형을 앞둔 금성대군이 위리안치됐던 곳이다.

소수서원을 출발한 소백산 자락길 제1구간은 금성단, 순흥향교, 삼괴정, 죽계구곡, 초암사 등을 두루 거쳐서 소백산 달밭골로 들어선다. '달밭'은 '산에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이 골짜기에는 소박한 움막을 짓고서 밭을 일구며 사는 주민들이 몇 있다.

초암사에서 삼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5.5킬로미터쯤 이어지는 달밭길은 한동안 울창한 숲 속의 작은 계곡과 나란히 이어진다. 아담한 소와 폭포를 이루는 계류가 바로 옆에 흐르고 있어서 물가가 그리운 여름철이나 낙엽 밟는 소리가 듣기 좋은 만추에 특히 걷기 좋다. 물소리, 바람소리를 길동무 삼아 인적 뜸한 숲길을 두어 시간만 걸어도 가슴속의 시름과 한숨이 모두 사라지는 듯하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코스 정보

▶ **제1구간** | 12.6킬로미터, 4시간 소요. 소수서원 → 금성단 → 압각수 → 순흥향교 → 삼괴정 → 죽계구곡 → 초암사 → 달밭골 → 비로사 → 삼가주차장

▶ **제2구간** | 16.7킬로미터, 4시간20분 소요. 삼가주차장 → 금계호 → 금선정 → 정감록촌 → 히여골 → 샛터 → 풍기온천 → 소백산역(희방사역)

▶ **제3구간** | 11.4킬로미터, 3시간10분 소요. 소백산역 → 죽령옛길 → 죽령주막 → 보국사지 → 죽령분교 → 용부사 → 죽령터널 입구 → 장림리

※ 올해에는 충북 단양군에 속하는 소백산 자락길의 네 구간(가리점마을 옛길, 황금구만량길, 온달평강 로맨스길, 김삿갓의 의풍 옛길) 59킬로미터가 추가로 개설돼 예정이다.

문의 | 영주문화연구회(054-633-5636), 단양관광관리공단(043-420-3697)

숙박

소백산 자락길 주변의 숙소로는 선비촌(054-638-6444)이 가장 권할 만하다. 풍기읍에는 펜션 '로뎀나무그늘아래'(054-635-6115), 하늘호수펜션(054-638-3688), 마운틴힐펜션(054-638-8589), 한국장(054-636-5701) 등의 숙박업소가 있다. 순흥면 소재지에는 동인모텔(054-633-9605)과 순흥여관(054-633-2790)이 있다.

맛집

풍기의 맛집으로는 약선당(약선요리 · 054-638-2728), 풍기인삼갈비(054-635-2382), 인천식당(청국장 · 054-636-3224), 한우프라자 '소'(한우구이 · 054-631-8400) 등이 있다. 풍기읍내 정도너츠(054-636-0067)의 생강도너츠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풍기의 명물. 순흥에는 소수서원 부근의 순흥묵집(묵조밥 · 054-632-2028), 선비촌의 선비촌종가(고등어구이정식 · 054-637-9981)가 대표 맛집이다.

가는 길

▶ **승용차** | 중앙고속도로 풍기나들목(5번 국도 · 단양 방면) → 죽령

▶ **대중교통** |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06:10, 08:10에 출발하는 중앙선 열차가 희방사역에서 정차한다. 3시간 내외 소요.



영세 음식점 사장님께 '美少' 드려요

한국음식업중앙회 미소금융 관악지점 개설

한국음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관악지점이 지난 6월 8일 서울 신림동 쑥고개에 문을 열었다. 소액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좀 더 원활한 대출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15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출범으로 본격화한 미소금융 정책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액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사업자금 지원 요건 및 절차 개선 관련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거주하는 미소금융 관악지점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미소금융 지점은 기업, 은행에서 관리하는 지점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직영지점 등 총 46개가 전국에 설립돼 있다. 그중 미소금융 관악지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운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외식업을 경영하는 전국 42만 업주와 3백만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직능단체.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의 60~70퍼센트가 외식업이라고 한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이처럼 광범위한 외식업 정보망을 활용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대출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별 재무설계 서비스도 제공

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 신훈 부장은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 관련 정보를 미리 확보해 이들 가운데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의 성실성이나 주위의 평판 등 내부 사정까지 가려내 사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소금융 관악지점은 대출금융 업무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개인별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은행 지점장 출신의 자원봉사자들이 실무를 맡아 구체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해주게 된다.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미소금융 관악지점은 주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년 10개월간 자원봉사로 재무설계 상담을 했다는 김대원(64) 미소금융 관악지점 상담자는 "대출 실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점을 찾은 모든 고객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자활과 창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관악지점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조한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각 지부를 이용해 주변 영세 자영업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살피고 도움을 주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대출 자영업자의 업소를 방문해 경영 지도와 지원을 해주고 한국음식업중앙회 업무 시스템과 연계해 자영업자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미소금융 관악지점을 맡은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미소금융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실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미소금융 관악지점 Tel 02-884-1040


4대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
공기 단축
제 52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쉬엄쉬엄 해라. 뭣 하러 그렇게 서둘러 쌌노?
공기(工期) 단축이 곧 비용절감 아이가.
가시고기
큰가시고기목 큰가시고기과
학명: Pungitius sinensis
그러다 부실공사 되면 새색시한테 욕먹는다카이.
부실공사라니!
착공 전에 꼼꼼하게 다 설계하고 모형까지 만들어 실험 다 마치고 이렇게 꼼꼼히 공사하는데, 무슨 부실시공이고?
이 지역 물의 흐름과 온도를 꼼꼼하게 따져서 실험까지 다 마치고 하는 거다! 모함 말거래이!
그럼 뭣 하러 그리 서두르노?
완공하자마자 때 빼고 광낼 시간도 없이 색시들이 오면 우야노?
그라네! 공들여 집 지은 거 다 꽝 되는 거네!
4대강살리기 서두르는 데 대해서도 말 많은 거 알재?
?
그것도 홍수 나기 전에 큰 공사를 마쳐서 비용도 줄이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도 방지하려는 거 아니겠나?
하모! 그러네!
내도 이렇게 꾸물댈 때가 아이다! 공기단축으로 비용절감해야재!
건투를 빈대이!

정끝별 교수가 추천하는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이 여름 詩처럼 살고 싶다!



시(詩) 바람이 불고 있다. 대중들은 서서히 그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올해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영화 〈시〉가 돌풍의 주역이다. 영화는 시를 쓰고 싶어 하는 60대 노인 미자의 이야기를 담는다. 미자는 시를 쓰면서 삶의 애한을 감내하고 삶의 기쁨을 노래한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법도 깨닫는다. 시가 속살 같은 언어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정끝별(45)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런 시점에서 출간된 한 권의 책을 추천했다. 마종기(71) 시인의 시작(詩作) 에세이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다.

1959년 〈현대문학〉에 '해부학교실'을 발표하며 등단한 마 시인은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40여 년간 방사선과 의사로 일했다. 인생의 반 이상을 타향에서 살아온 그지만 늘 모국어로 시를 쓰며 고국을 그리워했다.

올해 등단 50주년을 맞이한 마 시인은 그간 발표한 시 중 50편을 고르고, 각각에 얽힌 사연을 수록해 이 책을 펴냈다.

정 교수는 "평소 시에 관심이 없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시와 소통할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었다"며 "시라는 객관적 텍스트를 읽고, 뒤에 이어지는 시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시 읽는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시를 접했을 거예요. 참 좋은 시들이 많았지만 시의 본질이 아닌 형식에만 치우쳐 배우고, 시험 문제를 맞히기 위해 외워야 하니 시와 멀어지게 된 거죠. 이 책은 그렇게 사라져간 우리들의 순수하고 따스한 마음을 되돌려주는 '마사지' 같은 책이에요.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토닥토닥 두들기듯 위로해주면서 또다시 살아갈 힘을 북돋아주죠."



정끝별 교수는 "시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접시"라며 "마종기 시인의 시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렵다고 느끼는 시와 소통하는 계기 됐으면"

정 교수는 스무 살 무렵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마 시인의 시를 베껴 쓰고 읊으면서 습작을 했다. 그가 마 시인의 시에 빠져든 것은 시인의 올곧은 성품 때문. 시와 시인의 삶이 일치하고, 촌스러울 정도로 치장 없고 소박한 그의 시 세계는 우리나라 현대시에서 보기 드문 미덕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해가 안 가는 단어도 없고 관념적이지도 않은 마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순수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느끼게 된다"며 "그렇기에 그의 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울림의 폭이 크다"고 말했다.

"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접시'라고 생각해요. 마 시인의 시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그릇이죠. 혼란스럽고 척박한 요즘 같은 세상에 시가 촉촉이 스며들어 삶의 진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마종기 지음 / 비채 펴냄 · 1만1천5백원

사랑 더하기 희망 만들기

글과 그림 · 최영순



힘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고 용기는 가슴속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 펄 벅(미국 소설가)

무대서 다시 만나는 공옥진의 '병신춤'

전통공연 〈한국의 명인명무전〉

일시 6월 27일 오후 7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3만원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공옥진


송준영


이길주


정명숙

이른바 '병신춤'으로 불리는 1인 창무극의 대가 공옥진(78) 선생이 제 71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위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섰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우리 전통예술의 뿌리 찾기와 창조적 전승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전통 공연으로는 가장 오래 공연을 해오고 있다. 수많은 명인들이 이 무대를 거쳐 갔으며 전통예술의 토양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다.

이번 무대는 1996년 공연을 끝으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공옥진 선생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5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 선생은 천대와 멸시, 흥(興)과 한(恨)을 온몸으로 표현해 관객을 사로잡아온 이 시대의 진정한 광대로 평가받는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공 선생의 나이를 감안할 때 어쩌면 이번 공연은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 설령 관객들을 한없이 울고 웃게 만들었던 전성기 때의 모습은 볼 수 없을지언정 한 시대를 풍미한 그의 소리와 몸짓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숱한 마음들이 그를 이번 무대에 오르게 했다.

무용평론가인 이병옥 용인대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정명숙(이매방류살풀이춤), 송준영(훈령대장무), 이길주(신조무), 엄옥자(원향살풀이춤), 최선(대감놀이), 법우스님(승무), 유성수(태평무) 등이 출연한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21년째 기획해온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는 "이번 무대는 우리 전통 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풍부한 볼거리와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콘서트 〈2010 킹스 싱어즈 내한공연〉

일시 6월 30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650-7481 www.sac.or.kr



세계 최정상의 아카펠라 그룹 킹스 싱어즈가 한국을 찾는다. 올해로 결성 42주년을 맞은 킹스 싱어즈는 투명한 음색, 깊이 있는 음악성과 함께 익살스런 무대매너로 전 세계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죄르지 리게티, 펜 데레츠키, 루치아노 베리오,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 네드 로렘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작곡가들이 킹스 싱어즈를 위해 헌정한 작품들을 들려준다.

창작오페라 〈아랑〉

일시 6월 26일 오후 7시, 27일 오후 3시, 7시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원, 장애인 50퍼센트 할인(동반 1인까지, 전화 예약 시 적용)
문의 1644-2003 www.mct.or.kr



국립오페라단이 명동예술극장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왕자호동〉 이후 48년 만에 이 무대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창작오페라. 경남 밀양에서 전해지는 아랑 설화를 바탕으로 한 추리극과 우리 가락을 접목한 작품이다. 국악과 양악을 넘나들며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이끌어온 작곡가 황호준과 대한민국 연극계의 차세대 주자인 서재형이 각각 음악과 연출을 맡아 김민정 작가의 탄탄하고 섬세한 대본에 극적인 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녹색생활실천

달인을 찾습니다!



2010.6.14(월)~7.11(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멋진당신!
지구를 지키는 생생한 실천 비법과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진정한 달인을 기다립니다.

녹색생활실천 달인대회 공모전

모집분야 녹색실천수기, 녹색아이디어, 녹색소장품 (총 3개 분야)

접수기간 2010년 6월 14일(월) ~ 7월 11일(일)

참가대상 참가제한 없음 (기관 및 단체 제외)

접수방법 공모전 사이트 내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발 표 일 2010년 7월 26일(월)

공모주제

녹색실천수기
본인이 실천한 녹색생활 사례를 수기로 작성
예시) 자전거 통근, 폐식용유를 활용한 재활용비누 등

녹색아이디어
녹색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예시) 녹색소비를 통해 마일리지를 얻는 그린마일리지 제도 등

녹색소장품
오래되거나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물건(품)
예시) 20년 이상 사용한 자전거, 3대 째 사용 중인 책상 등

※ 복수응모가능(1인이 3개 분야 제출 가능)

시상내역 **최우수상**(3명) 캐논 DSLR 450D KIT / **우수상**(6명) 삼천리자전거 / **장려상**(9명) 백화점 10만원 상품권 / **입상**(21명) 명함지갑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mopas.go.kr

행정안전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GREEN GROWTH KOREA


국가보훈처
선열들의 애국정신
우리가 이어갈
차례입니다